

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2021. 12



차 례

| | |
|------------------------------------|----|
|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 3 |
|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 3 |
| 2)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 | 4 |
|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 5 |
| 4) 보고서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 6 |
|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 11 |
| 1)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지표 현황 | 11 |
| 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11 |
| 나. 잠재실업률 | 15 |
| 다. 고용정책 중점대상 | 16 |
| 2) 임금노동자 규모 | 17 |
| 3) 임금노동자 특징 | 18 |
| 가. 개인적 특성 | 18 |
| 나. 산업별 분포 | 21 |
| 다. 직종별 분포 | 23 |
| 라. 사업체 규모별 분포 | 24 |
| 4)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25 |
| 가. 전체 임금노동자 | 25 |
| 나. 개인적 특성별 차이 | 27 |
| 다. 산업별 차이 | 34 |
| 라. 직종별 차이 | 36 |
| 마. 사업체 규모별 차이 | 38 |

| | |
|------------------------------|----|
|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 41 |
|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41 |
| 가. 전체 임금노동자 | 41 |
| 나. 성별 차이 | 42 |
| 다. 연령대별 차이 | 43 |
| 라. 학력별 차이 | 44 |
| 마. 근무기간별 차이 | 45 |
| 바. 산업별 차이 | 46 |
| 사. 직종별 차이 | 48 |
|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51 |
| 2)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비교 | 52 |
| 가. 전체 임금노동자 | 52 |
| 나. 성별 차이 | 55 |
| 다. 연령대별 차이 | 55 |
| 라. 학력별 차이 | 57 |
| 마. 근무기간별 차이 | 58 |
| 바. 산업별 차이 | 59 |
| 사. 직종별 차이 | 61 |
|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62 |
| 3)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비교 | 63 |
| 가. 전체 임금노동자 | 63 |
| 나. 성별 차이 | 64 |
| 다. 연령대별 차이 | 65 |
| 라. 학력별 차이 | 66 |
| 마. 근무기간별 차이 | 67 |
| 바. 산업별 차이 | 68 |

| | |
|-----------------------------------------------|-----------|
| 사. 직종별 차이 | 70 |
| 아. 사업체규모별 차이 | 71 |
|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 75 |
| 1)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 75 |
| 가. 거주지 분포 | 75 |
| 나. 개인적 특성 | 76 |
| 다. 고용형태별 분포 | 78 |
| 라. 산업별 및 직종별 분포 | 79 |
| 2)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81 |
|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 85 |
| 1) 일반적 현황 | 85 |
| 가. 산업5분류별 분포 | 85 |
| 나. 고용형태별 분포 | 86 |
| 다. 성별 분포 | 87 |
| 라. 연령대별 분포 | 88 |
| 마. 학력별 분포 | 89 |
| 바. 근무기간별 분포 | 90 |
| 사. 직종별 분포 | 91 |
| 2) 월 평균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 92 |
|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업종/직종별 취약부문 | 97 |

표 차례

| | |
|-------------------------------------------------|----|
| [표 2-1] 수원시 고용지표 총괄 | 14 |
| [표 2-2] 수원시 고용정책 중점대상 추이 | 17 |
| [표 2-3]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 19 |
| [표 2-4] 수원시 임금노동자 소속 사업체 소재지 | 21 |
| [표 2-5]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 22 |
| [표 2-6]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 24 |
| [표 2-7]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규모 및 비율 | 25 |
| [표 2-8]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28 |
| [표 2-9]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여부 | 28 |
| [표 2-10]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임금(구분) | 28 |
| [표 2-11]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월 평균임금 | 29 |
| [표 2-12]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연령대별 평균임금 | 31 |
| [표 2-13] 임금노동자 종사상 지위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34 |
| [표 2-14] 임금노동자 산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36 |
| [표 2-15] 임금노동자 직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37 |
| [표 2-16]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38 |
| [표 3-1]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 41 |
| [표 3-2] 임금노동자 성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42 |
| [표 3-3] 임금노동자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47 |
| [표 3-4] 임금노동자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49 |
| [표 3-5] 수원시 임금노동자 직종별-성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49 |
| [표 3-6] 2017년~2021년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 52 |
| [표 3-7]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 55 |
| [표 3-8] 임금노동자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56 |

| | |
|---------------------------------------------|----|
| [표 3-9]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58 |
| [표 3-10]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59 |
| [표 3-11]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60 |
| [표 3-12]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1 | 62 |
| [표 3-13]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2 | 62 |
| [표 3-14]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63 |
| [표 3-15]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64 |
| [표 3-16]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65 |
| [표 3-17]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66 |
| [표 3-18]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67 |
| [표 3-19]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68 |
| [표 3-20]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69 |
| [표 3-21]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1 | 70 |
| [표 3-22]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2 | 71 |
| [표 3-23]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71 |
| [표 4-1]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거주지 | 75 |
| [표 4-2]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 77 |
| [표 4-3]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율 | 78 |
| [표 4-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 79 |
| [표 4-5]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 81 |
| [표 4-6]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82 |
| [표 5-1]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 87 |
| [표 5-2]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성별 현황 | 88 |
| [표 5-3] 2020년~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연령대별 비율 | 89 |
| [표 5-4]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학력별 비율 | 89 |
| [표 5-5]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근무기간별 비율 | 90 |
| [표 5-6]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직종별 현황 | 91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2021년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 12 |
| [그림 2-2] 2017년~2021년 수원시 고용률 | 13 |
| [그림 2-3] 2017~2021년 수원시의 기본 고용 현황 | 14 |
| [그림 2-4] 2017년~2021년 수원시 잠재실업률 | 15 |
| [그림 2-5] 수원시 잠재실업률 추이(연령별) | 16 |
| [그림 2-6] 2017~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수 | 18 |
| [그림 2-7] 2017년~2021년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 26 |
| [그림 2-8] 2017년~2021년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 27 |
| [그림 2-9]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월 평균임금 | 30 |
| [그림 2-10]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 | 31 |
| [그림 2-11] 임금노동자 학력별 월 평균임금 | 32 |
| [그림 2-12] 임금노동자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 32 |
| [그림 2-13]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월 평균임금 | 33 |
| [그림 2-14]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주당 노동시간 | 33 |
| [그림 3-1] 2017-2021년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 42 |
| [그림 3-2]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 44 |
| [그림 3-3] 임금노동자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 45 |
| [그림 3-4]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 46 |
| [그림 3-5]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 51 |
| [그림 3-6]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평균시급 | 53 |
| [그림 3-7]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구간별 비율 | 54 |
| [그림 3-8]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 57 |
| [그림 5-1] 2018년~2021년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노동자수 | 86 |
| [그림 5-2] 2018년~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월 평균임금 | 92 |

| | |
|----------------------------------------------|----------|
| [그림 5-3] 2018년~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주 노동시간 | · 93 |
| [그림 5-4]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임금 구간 | 94 |
| [그림 6-1] 경기도 31개 시군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 98 |
| [그림 6-2] 경기도 31개 시군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 99 |
| [그림 6-3] 경기도 31개 시군 임금노동자 월급 200만 원 이하 비율 | 99 |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 이 보고서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수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함
 -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2회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거의 유일함
 -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고서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어떠한 분석을 진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함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196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를 요구하는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러한 지역 차원의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
 -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으로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본조사)와 거의 동일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별
 - 1)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지위별 임금노동자 현황 등의 내용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파악
- 아울러 확대된 조사대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2) 산업 및 직종별 취업자1) 현황에서 대분류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직업 소분류

1) 2018년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되었음. 직업대분류의 경우에는 10개 직종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산업대분류는 21개 업종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여 업종분류의 조정이 있었으며,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별 현황²⁾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조사대상의 규모를 확대하여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8~2010년은 연간 1회, 2010년~2012년은 연간 4회(분기별),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연간 2회(반기별) 조사를 진행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규모 : 약 32,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규모 : 약 199,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000가구를 포함한 수치)

2)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

-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기본항목(5) : ① 가구주와의 관계 ② 성별 ③ 연령 ④ 교육정도 ⑤ 혼인상태
 - 확인사항(4) : ① 주된 활동상태 ② 취업여부 ③ 일시휴직여부 ④ 구직활동여부
 - 취업시간(3) : ① 주된 일 시간 ② 다른 일 시간 ③ 총 일한시간
 - 구직사항(6) : ① 취업가능성 ② 구직경로 및 방법 ③ 구직기간 ④ 취업희망여부 ⑤ 비구직 사유 ⑥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 직장사항(8) : ①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 이직사유 ③ 산업(직장소재지) ④ 직업 ⑤ 종사상지위 ⑥ 현직장 취업시기 ⑦ 월 평균임금 ⑧ 고용계약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 <지역별 고용조사> 문항 중 기본항목과 직장사항의 문항 중에서 개인특성과 사업체특성을 독립변수(분류 기준)로 하여 총 근무시간(주업+부업), 월 평균임금 등을 종속변수로 임금노동자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비교가 가능
- 1) 개인특성 및 사업체특성(독립변수) :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산

과 같은 대분류로 조정

2) 지역별 현황 자료에서는 산업/직업분류는 대분류까지만 제공하고 있음

업(중분류), 직업(중분류), 종사상지위(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노동자는 상용, 임시, 일용만 해당), 직장시작시기(근무기간), 사업체소재지(근무지)

2) 노동현황(종속변수) : 주된 일 시간/다른 일 시간/총 일한 시간, 월 평균임금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 이 보고서는 1차적으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금노동자 현황 및 고용형태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 및 경기도 지역 현황과의 비교도 병행
- 이와 같은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고용조사>가 유일
- 따라서 2021년 4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21년 11월에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 및 고용형태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
 -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435,770명(취업자 254,924명, 실업자 7,441명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173,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수원시는 2,476명의 15세 이상 인구가 <지역별 고용조사> 설문조사에 응답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응답자 중에서 수원시의 취업자는 1,403명, 실업자는 57명이 응답했으며,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1,234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1명, 무급가족종사자 8명이 응답

4) 보고서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기
에 통계청에서 매년 8월에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의 구체적
인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즉, 임금노동자를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의 한시적,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호출근로 등 다양한 유형
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
- 다만 <지역별 고용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
소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은 파악이 가능
-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정규직과 비
정규직으로 구분해서 확인
 - 이를 위해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새롭게 분류하기 위해 종
사상지위(상용/임시/일용), 고용계약기간 설정 여부, 총 일한시간
3가지 변수를 활용³⁾
- 상용직의 경우 정규/비정규직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임시직과 일용
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이하 계약직이 분명하므로 따라서
상용직 중에서 비정규직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용계약기간
을 정했는가(기간제 여부)와 주당노동시간 정보를 통해서 시간제
여부를 확인 가능
-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정규직 분류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류 작업을 진행
 - ① 임시직과 일용직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비정규직으로 분류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비전형 고용(파견, 용역, 특수형태고용, 호출근로, 가내근로) 등 비정규직 유형을 조사하여 정규/비정규직을 분류하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비전형 고용 관련 문항이 없어서 소위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은 파악할 수 없음.

- ② 상용직이면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③ 상용직이면서 주당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④ 상용직 중에서 ‘계약직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의 중복을 제거하고 정규직으로 정의
- 그럼에도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소위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실제 수원시의 비정규직 규모보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현실보다 과소 추계되었음
 - 특히, 사용자가 둘 이상인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리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자영업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큼
- 비정규직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임금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 실태를 고용형태와 임금,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만 분류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비정규직은 ‘지역별 고용조사 비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있음

〈참고〉 통계청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분류기준

□ 상용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한시적 기간(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앞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원시 고용관련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함

1)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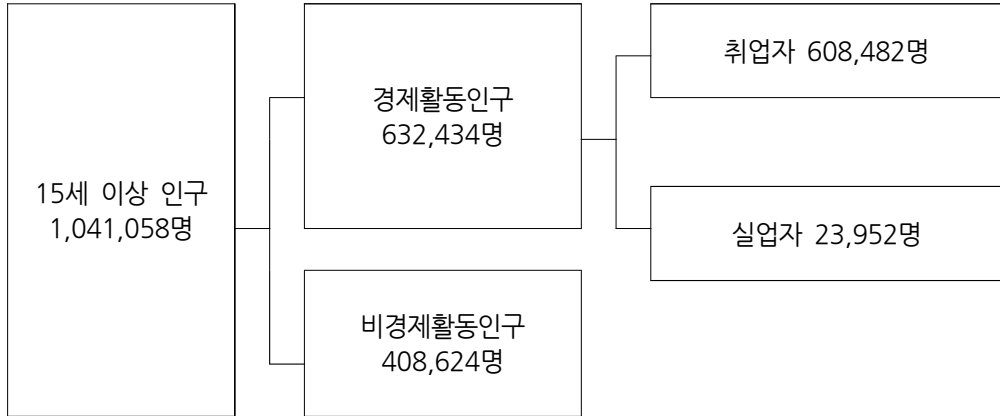
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통계청에서 매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
 - 이는 우선 경제활동(economical activity) 여부에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⁴⁾로 구분
 -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면서 학생, 주부, 취업포기자 등과 같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함
- 2021년 상반기⁵⁾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한 수원시의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1,041,058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32,434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08,624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608,482명, 실업자는 23,952명으로 확인
 - 참고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수원시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1,018,826명, 경제활동인구는 612,479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06,347명,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590,397명, 실업자는 22,082명이었음
 - 지난 3년 동안 수원시의 실업자 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원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음. 다만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2019년보다는 증가

4) 실업자의 정의는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바로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이. 구직활동 자체가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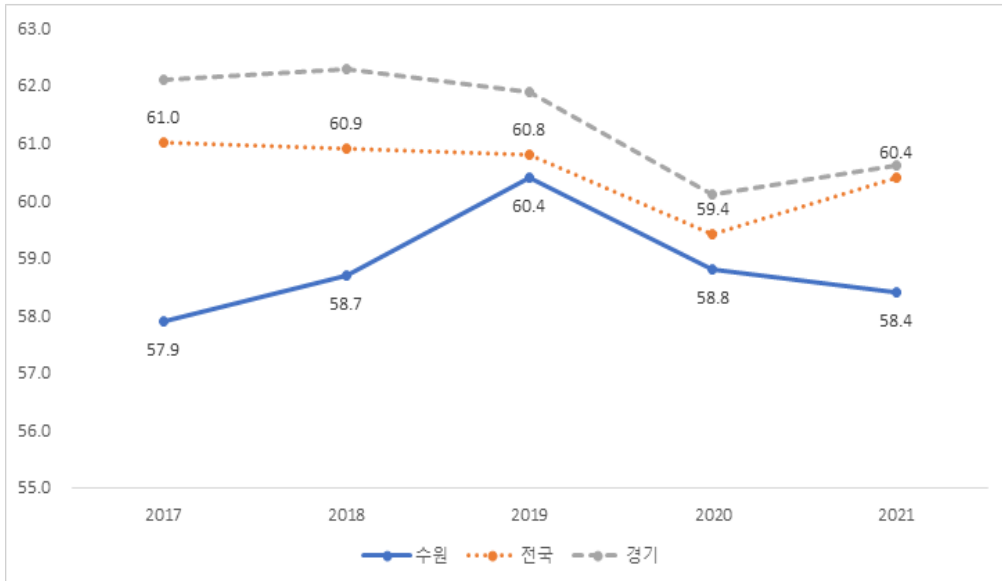
5) 아래에서부터 '2021년'은 '2021년 상반기'를 의미.

[그림 2-1] 2021년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 그리고 2021년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60.7%,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58.4%,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비율)은 3.8%
 -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음. 그러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여 202년부터 다시 50%대로 하락
 - 반면 실업률은 2021년 3.8%로 전년도와 같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그림 2-2] 2017년~2021년 수원시 고용률



주 : 수원은 시군 가중치, 전국 및 경기도는 시도 및 전국가중치 적용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각년도 상반기).

※ 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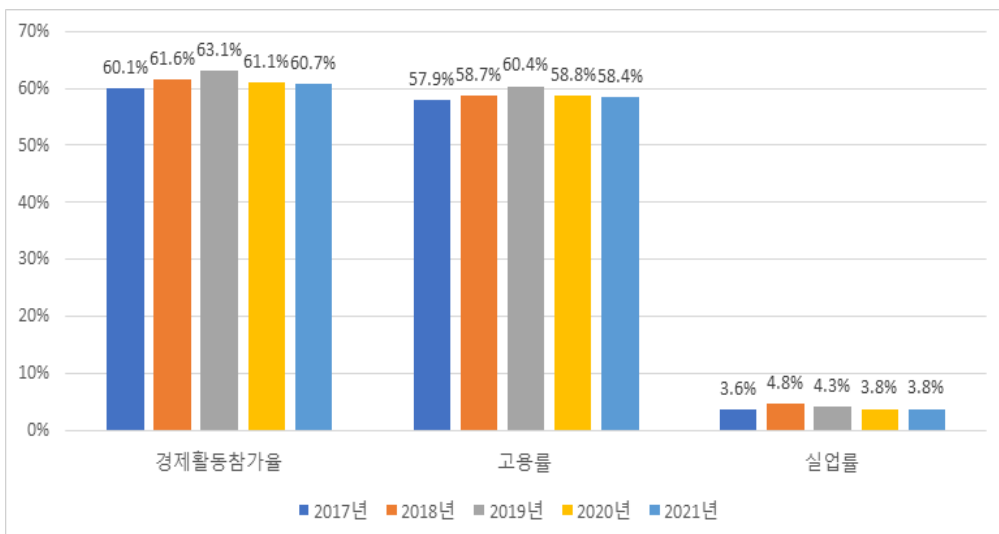
-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고용률은 58.4%로 경기도 시지역의 고용률 60.6%보다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고용률은 68.5%로 높은 수준인 반면, 여자는 48.4%로 낮은 수준에 있음
 - 연령별로 40대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인구가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가 적은 것으로 보임
 - 학력별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인력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아짐
- 실업자는 23,952명으로 남자가 13,927명, 여자가 10,02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천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실업자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15,2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졸이 12,741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1] 수원시 고용지표 총괄

(단위:명,%)

| | | 생산가능 인구 | 경제활동 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잠재경제 활동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잠재 실업률 |
|-----|--------|-----------|---------|---------|--------|-----------|----------|------|--------|
| 전체 | | 1,041,058 | 632,435 | 608,483 | 23,952 | 45,549 | 60.7 | 58.4 | 11.0 |
| 성별 | 남자 | 519,380 | 369,933 | 356,006 | 13,927 | 23,473 | 71.2 | 68.5 | 10.1 |
| | 여자 | 521,678 | 262,502 | 252,477 | 10,025 | 22,076 | 50.3 | 48.4 | 12.2 |
| 연령별 | 15~39세 | 420,480 | 257,208 | 241,954 | 15,254 | 27,183 | 61.2 | 57.5 | 16.5 |
| | 40~49세 | 203,262 | 154,444 | 150,142 | 4,302 | 6,932 | 76.0 | 73.9 | 7.3 |
| | 50~69세 | 330,060 | 205,859 | 202,805 | 3,054 | 8,974 | 62.4 | 61.4 | 5.8 |
| | 70세 이상 | 87,256 | 13,921 | 13,581 | 340 | 2,460 | 16.0 | 15.6 | 20.1 |
| 학력별 | 중졸이하 | 134,959 | 43,159 | 42,008 | 1,151 | 3,662 | 32.0 | 31.1 | 11.2 |
| | 고졸 | 325,982 | 189,684 | 184,333 | 5,351 | 13,416 | 58.2 | 56.5 | 9.9 |
| | 전문대졸 | 131,018 | 88,765 | 84,056 | 4,709 | 7,542 | 67.8 | 64.2 | 13.8 |
| | 4년제졸 | 380,126 | 255,692 | 242,951 | 12,741 | 17,940 | 67.3 | 63.9 | 12.0 |
| | 대학원졸 | 68,973 | 55,135 | 55,135 | 0 | 2,989 | 79.9 | 79.9 |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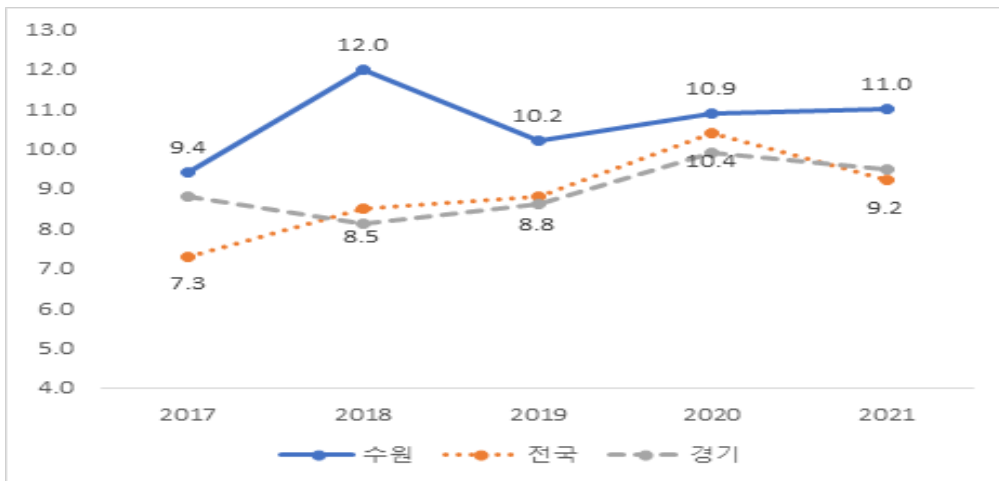
[그림 2-3] 2017~2021년 수원시의 기본 고용 현황



나. 잠재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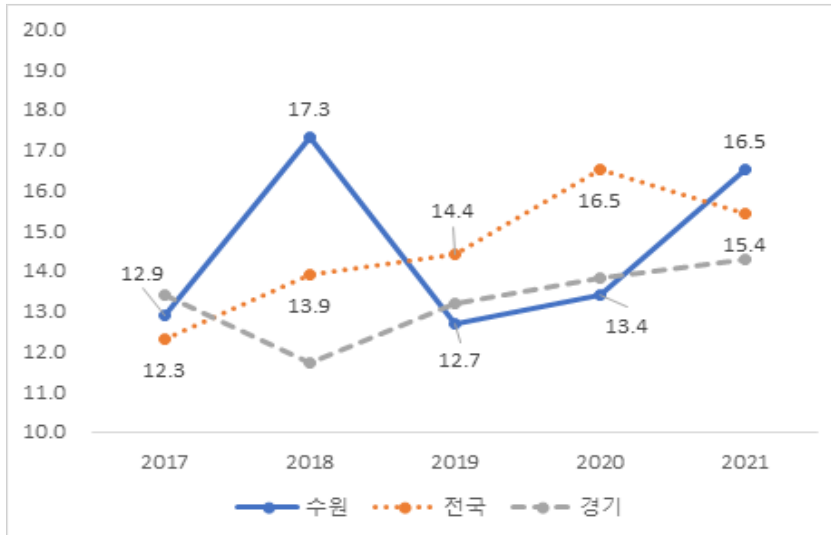
- 실업률과 잠재적 실업률 합계인 잠재실업률은 2021년 상반기 11.0%임. 전국과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수원시가 높게 나타났고, 18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추세지만 여전히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잠재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나 공시준비 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과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 취업준비를 위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그림 2-4] 2017년~2021년 수원시 잠재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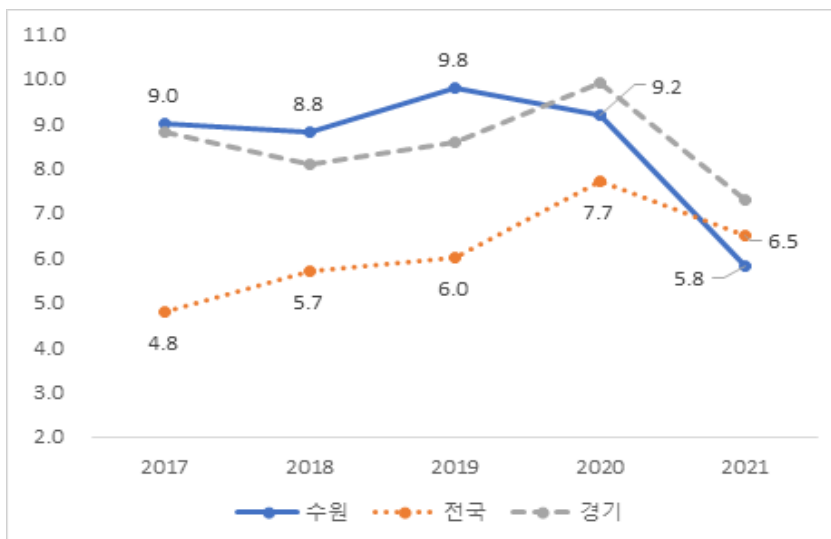


- 연령별 잠재실업률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은 18년 상승 후 감소 추세에 들어서며 전국과 경기도 평균 이하에 머물다가 2021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청년층에서의 잠재실업률은 2018년 - 2021년 전국과 경기도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보임
- 5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17~2019년간 전국과 경기도 평균 잠재실업률보다는 높지만 202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그림 2-5] 수원시 잠재실업률 추이(연령별)



<15~39세>



<50~69세>

다. 고용정책 중점대상

- 고용정책중점대상은 실업자와 잠재실업자를 합한 것인데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으려는 인력이고 잠재실업자는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인력으로, 실제 지역에서 창출해야 할 일자리 총량을 추정하는데 활용됨

- 수원시는 일자리가 필요한 고용정책중점대상이 매년 증가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69,500여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였음
- 성별로는 남자가 37,400여개 일자리, 여자가 32,100여개 일자리가 필요하여 남자가 진입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 30대 이하 청년층이 34,800여개 일자리, 50-60대는 13,000여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수원시 고용정책 중점대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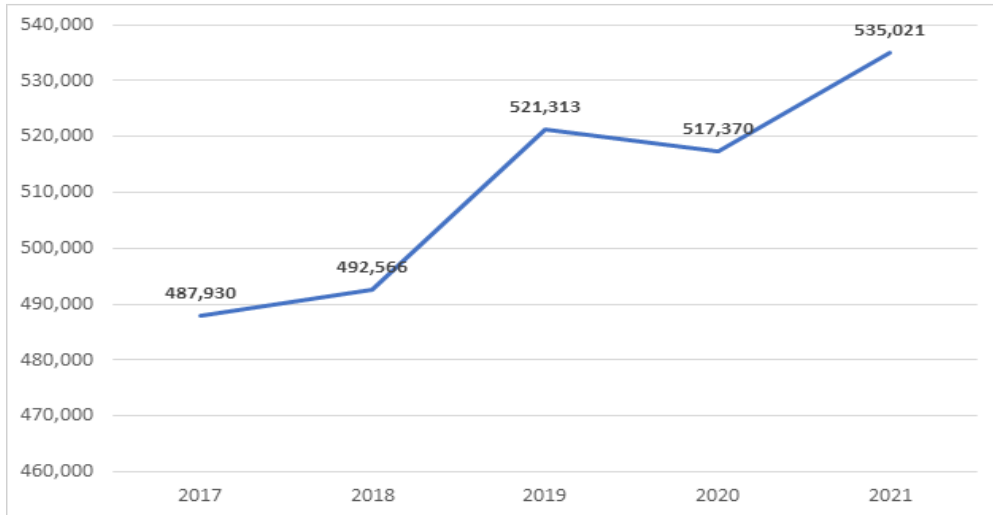
(:)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전체 | | 57,569 | 75,855 | 66,612 | 69,338 | 69,501 |
| 성별 | 남자 | 27,532 | 39,908 | 36,391 | 36,776 | 37,400 |
| | 여자 | 30,037 | 35,947 | 30,220 | 32,561 | 32,101 |
| 연령별 | 15~39세 | 33,332 | 45,192 | 33,829 | 34,835 | 42,437 |
| | 40~49세 | 6,272 | 11,747 | 10,318 | 12,482 | 11,234 |
| | 50~69세 | 16,095 | 17,334 | 20,457 | 18,547 | 13,028 |
| | 70세 이상 | 1,870 | 1,582 | 2,008 | 3,474 | 2,800 |

2) 임금노동자 규모

- 2021년 기준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수원시의 임금노동자 수는 535,021명으로 확인되며,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521,3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다만, 2020년 상반기에는 임금노동자수가 2019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

[그림 2-6] 2017~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수



3) 임금노동자 특징

가. 개인적 특성

- 2021년 상반기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7.6%, 여성이 42.4%로 남성이 다수이지만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남성 비중은 60.3%에서 비율이 줄어든 반면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39.7%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연령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30대와 40대가 2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추세이며, 30~50대 모두 20% 초반으로 이들 세대가 임금노동자의 주축임
 - 29세 이하 노동자 및 6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은 각각 18.2%, 11.5%로 전국의 같은 연령대가 각각 17.3%, 15.1%인 것과 비교하면 수원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다소 젊은 편이지만 6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은 2017년 8.0%에서 2021년 11.5%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령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임금노동자가 59.4%, 고졸이 33.4%로 한국의 전체적인 임금노동자들의 학력수준보다는 높은 편이며, 중졸 이하의 비중이 7.2%로 절대적으로 낮은 편
- 현재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확인한 결과 1~5년 이하의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25.3%였음
 -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수원시의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전국 임금노동자들보다 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수원시 임금노동자 535,021명 중 상용직은 407,438명으로 76.2%, 임시직은 99,206명으로 18.5%, 일용직은 28,377명으로 5.3%로 확인
 -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로 상용직 비중은 높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낮음

[표 2-3]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 구분 | | 수원 | | 전국 |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성 | 남성 | 308,246 | 57.6 | 11,391,448 | 55.2 |
| | 여성 | 226,775 | 42.4 | 9,255,121 | 44.8 |
| 연령 | 29세 이하 | 97,173 | 18.2 | 3,580,567 | 17.3 |
| | 30대 | 131,586 | 24.6 | 4,496,870 | 21.8 |
| | 40대 | 131,770 | 24.6 | 4,917,502 | 23.8 |
| | 50대 | 112,765 | 21.1 | 4,536,984 | 22.0 |
| | 60세 이상 | 61,727 | 11.5 | 3,114,646 | 15.1 |
| 학력 | 중졸이하 | 38,384 | 7.2 | 2,275,093 | 11.0 |
| | 고졸 | 178,844 | 33.4 | 7,459,051 | 36.1 |
| | 전문대졸이상 | 317,793 | 59.4 | 10,912,425 | 52.9 |
| 근무 기간 | 6개월 이하 | 106,940 | 20.0 | 4,985,837 | 24.1 |
| | 6개월~1년 이하 | 43,715 | 8.2 | 1,564,967 | 7.6 |

| 구분 | | 수원 | | 전국 |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 1~5년 이하 | 175,412 | 32.8 | 6,544,975 | 31.7 |
| | 5~10년 이하 | 73,524 | 13.7 | 2,987,684 | 14.5 |
| | 10년 초과 | 135,431 | 25.3 | 4,563,107 | 22.1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407,438 | 76.2 | 14,712,062 | 71.3 |
| | 임시직 | 99,206 | 18.5 | 4,667,042 | 22.6 |
| | 일용직 | 28,377 | 5.3 | 1,267,466 | 6.1 |
| 합계 | | 535,021 | 100.0 | 20,646,569 | 100.0 |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추가하여, 이를 통해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취업자들의 지역 간 이동의 특성을 확인 가능
- 임금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소재지 정보를 통해서 임금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수원시 노동자들이 수원시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50.4%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고 있음
 -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자체와 비교하면 거주 지역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는 수도권 지역이 사실상 단일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은 수원을 제외하면 기아차 공장이 있는 화성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4,776명(1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소재 회사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도 64,557명(12.1%)로 화성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수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이외에 용인시와 성남시, 안양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1만 명 이상으로 확인
 - 서울로 출근하는 수원시 노동자의 수와 비율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성시로 출근하는 노동자수와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이는 화성시 동탄 신도시 개발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표 2-4] 수원시 임금노동자 소속 사업체 소재지

| 지역명 | 인원수 | 비율(%) | 지역명 | 인원수 | 비율(%) |
|---------------|----------------|-------------|---------------|---------------|-------------|
| 서울특별시 | 64,577 | 12.1 | 경기 의왕시 | 5,824 | 1.1 |
| 대구광역시 | 426 | 0.1 | 경기 하남시 | 447 | 0.1 |
| 인천광역시 | 4,811 | 0.9 | 경기 용인시 | 35,080 | 6.6 |
| 세종특별자치시 | 432 | 0.1 | 경기 파주시 | 836 | 0.2 |
| 경기 수원시 | 269,551 | 50.4 | 경기 이천시 | 5,047 | 0.9 |
| 경기 성남시 | 22,524 | 4.2 | 경기 안성시 | 1,732 | 0.3 |
| 경기 의정부시 | 410 | 0.1 | 경기 김포시 | 787 | 0.1 |
| 경기 안양시 | 14,786 | 2.8 | 경기 화성시 | 64,776 | 12.1 |
| 경기 부천시 | 946 | 0.2 | 경기 광주시 | 1,303 | 0.2 |
| 경기 광명시 | 1,297 | 0.2 | 경기 양주시 | 485 | 0.1 |
| 경기 평택시 | 10,748 | 2.0 | 경기 여주시 | 364 | 0.1 |
| 경기 동두천시 | 410 | 0.1 | 경기 양평군 | 447 | 0.1 |
| 경기 안산시 | 5,335 | 1.0 | 강원 원주시 | 939 | 0.2 |
| 경기 고양시 | 426 | 0.1 | 충북 청주시 | 430 | 0.1 |
| 경기 과천시 | 1,743 | 0.3 | 충북 진천군 | 891 | 0.2 |
| 경기 남양주시 | 904 | 0.2 | 충북 음성군 | 426 | 0.1 |
| 경기 오산시 | 6,525 | 1.2 | 충남 천안시 | 426 | 0.1 |
| 경기 시흥시 | 2,685 | 0.5 | 충남 아산시 | 877 | 0.2 |
| 경기 군포시 | 4,909 | 0.9 | 충남 홍성군 | 461 | 0.1 |
| | | | 합계 | 535,021 | 100 |

나. 산업별 분포

- 수원시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노동자는 없었으며, 21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에서는 제조업 노동자가 16.7%로 단일 업종 중에서는 노동자수가 가장 많았음

●● 2021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2019년 20.8%에서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1년 동안 5%p 이상 감소(2021년 제조업 15.8%)하였으나 2021년 점차 회복하는 모습임
- 두 번째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10.6%로 비중이 높았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0%로 세 번째이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2019년 8.2%에서 노동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다음으로 건설업(9.4%), 도소매업(8.9%), 교육서비스업(7.4%)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산업 내 노동자 비중을 2020년과 비교하면 도소매업은 10.9%에서 8.9%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교육서비스업이 9.4%에서 7.4%로 감소하였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노동자 비중은 2018년 7.4%에서 2020년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 2021년 10.6%로 증가함
- 전반적으로 제조업 노동자 수는 줄어들고 서비스업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별 분포의 특징
- 도소매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아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5]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 산업별 | 수원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농림어업 | 461 | 0.1 | 101,630 | 0.5 |
| 광업 | 447 | 0.1 | 12,321 | 0.1 |
| 제조업 | 89,286 | 16.7 | 3,916,615 | 19.0 |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871 | 0.2 | 62,434 | 0.3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3,603 | 0.7 | 154,974 | 0.8 |
| 건설업 | 50,223 | 9.4 | 1,667,386 | 8.1 |

| 산업별 | 수원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도소매업 | 47,679 | 8.9 | 2,122,931 | 10.3 |
| 운수및창고업 | 23,460 | 4.4 | 912,595 | 4.4 |
| 숙박및음식점업 | 32,982 | 6.2 | 1,274,751 | 6.2 |
| 정보통신업 | 26,274 | 4.9 | 806,592 | 3.9 |
| 금융보험업 | 17,915 | 3.3 | 787,012 | 3.8 |
| 부동산업 | 9,910 | 1.9 | 364,350 | 1.8 |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56,741 | 10.6 | 1,046,355 | 5.1 |
|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 | 33,206 | 6.2 | 1,254,535 | 6.1 |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 21,590 | 4.0 | 1,157,132 | 5.6 |
| 교육서비스업 | 39,841 | 7.4 | 1,537,828 | 7.4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53,372 | 10.0 | 2,395,603 | 11.6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7,055 | 1.3 | 218,086 | 1.5 |
|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 | 19,763 | 3.7 | 652,600 | 3.2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340 | 0.1 | 86,118 | 0.4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14,721 | 0.1 |
| 합계 | 535,021 | 100.0 | 20,646,569 | 100.0 |

다. 직종별 분포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직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는데, 2020년 33.8%보다 비중이 더 낮아짐
 - 아울러 전국 평균 전문가 비율 22.5%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가 22.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15.1%로 세 번째 순서
- 반면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기계조립조작 종사자 등 주로 생산 기능직에 해당되는 직종의 임금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비슷한 수준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직종별 특징은 연구 및 전문기술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수원시의 산업적인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산업별 현황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닌데도 생산기능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수원시의 제조업 내부 구성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즉, 제조업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무직이나 기술직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6]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 직업 | 수원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관리자 | 7,446 | 1.4 | 365,086 | 1.8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171,845 | 32.1 | 4,651,662 | 22.5 |
| 사무종사자 | 121,139 | 22.6 | 4,443,257 | 21.5 |
| 서비스종사자 | 38,808 | 7.3 | 2,031,105 | 9.8 |
| 판매종사자 | 29,693 | 5.5 | 1,594,559 | 7.7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466 | 0.1 | 52,022 | 0.3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40,982 | 7.7 | 1,766,418 | 8.6 |
|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 44,093 | 8.2 | 2,118,169 | 10.3 |
| 단순노무 종사자 | 80,549 | 15.1 | 3,624,292 | 17.6 |
| 합계 | 535,021 | 100.0 | 20,646,569 | 100.0 |

라. 사업체 규모별 분포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300명 이상으로 20.7%에 이룸. 그 다음으로는 30~99명 20.5%, 10~29명 19.8%순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2%임.

- 수원시의 임금노동자들은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30명 미만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수원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30명 이상부터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대기업(300명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0.7%로 전국 평균 13.9%보다 절반 가까이(48.9%) 더 높음
- 대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뒤에서 살펴볼 수 원시 임금노동자의 높은 임금수준 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표 2-7]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규모 및 비율

| 직업 | 수원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1~4명 | 76,209 | 14.2 | 3,683,656 | 17.8 |
| 5~9명 | 77,828 | 14.5 | 3,465,742 | 16.8 |
| 10~29명 | 105,894 | 19.8 | 4,655,607 | 22.5 |
| 30~99명 | 109,610 | 20.5 | 3,978,576 | 19.3 |
| 100~299명 | 54,464 | 10.2 | 1,986,370 | 9.6 |
| 300명 이상 | 111,016 | 20.7 | 2,876,618 | 13.9 |
| 전체 | 535,021 | 100.0 | 20,646,569 | 100.0 |

4)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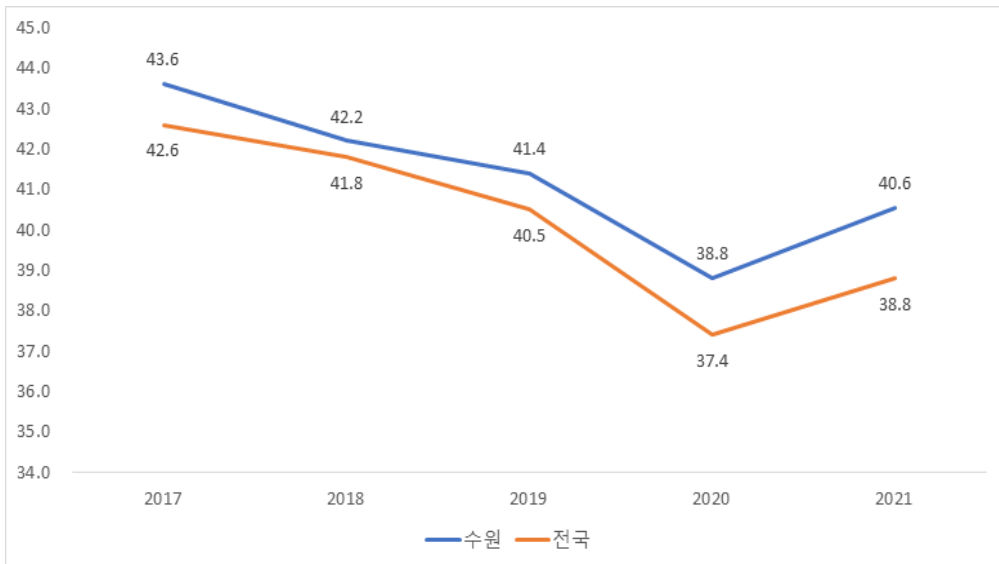
가. 전체 임금노동자

- 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0.6시간으로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38.8시간과 비교하면 1.8시간 장시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43.6시간과 비교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감소하였고, 특히 2020년에 빠르게 감소
- 한국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21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2020년 수원과 전국 모두 처음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수원시는 40시간 이상으로 회복
-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노동시간 감소 추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 근무 상한 적용의 영향으로 추정
- 다만 2020년은 앞서 비정규직 규모 확산에서 언급한대로 조사기간 주중에 공휴일(총선)의 영향으로 노동시간이 더 빠르게 하락했다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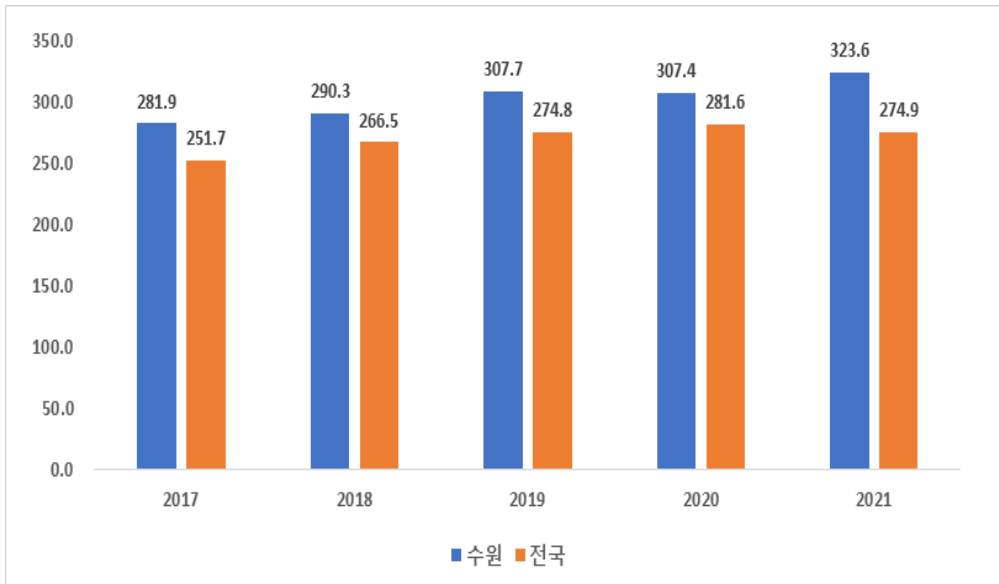
[그림 2-7] 2017년~2021년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 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323.6만원으로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274.9만원과 비교하면 약 50만 원 높은 편이며,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확연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
- 2020년 평균임금이 307.4만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6.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수원시 평균임금 281.9만원과 비교하면 지난 3년 동안 수원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약 40만원 상승

-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8] 2017년~2021년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나. 개인적 특성별 차이

(1) 성별

- 남성 임금노동자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2.7시간, 여성은 37.6시간으로 노동시간의 격차는 13.6%
 - 1주 35시간 미만 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25.1%로 남성노동자 7.6%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음
 -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단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성별 임금격차가 55.8%인데 반해 노동시간의 차이는 13.6%. 성별 임금격차는 남녀간 노동시간의 길고 짧음에도 원인이 있지만, 노동시간의 길고 짧음이 남녀간 임금격차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표 2-8]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성별 | 수원시 | | 전국 | |
|----|----------------|---------------|----------------|---------------|
|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시간 (시)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시간 (시) |
| 남자 | 381.52 | 42.72 | 327.37 | 41.22 |
| 여자 | 244.86 | 37.61 | 210.36 | 35.85 |
| 전체 | 323.60 | 40.55 | 274.92 | 38.83 |

[표 2-9]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여부

| 구분 | 시간제_36시간미만 | 전일제_36시간이상 | 전체 |
|----|------------|------------|---------|
| 남자 | 23,049 | 282,161 | 305,210 |
| | 7.6% | 92.4% | 100.0% |
| 여자 | 56,596 | 169,282 | 225,878 |
| | 25.1% | 74.9% | 100.0% |
| 전체 | 79,645 | 451,443 | 531,088 |
| | 15.0% | 85.0% | 100.0% |

-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남성 중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11.5%인데 반해, 여성 노동자는 33.6%로 약 3배 정도 높음

[표 2-10]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임금(구분)

| 구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200만원 | 200만원~300만원 | 300만원~400만원 | 400만원~500만원 | 500만원 이상 | 전체 |
|----|----------|-------------|-------------|-------------|-------------|----------|---------|
| 남자 | 7,150 | 28,535 | 74,082 | 79,248 | 46,821 | 72,409 | 308,245 |
| | 2.3% | 9.3% | 24.0% | 25.7% | 15.2% | 23.5% | 100.0% |
| 여자 | 29,516 | 46,651 | 87,037 | 33,137 | 15,938 | 14,496 | 226,775 |
| | 13.0% | 20.6% | 38.4% | 14.6% | 7.0% | 6.4% | 100.0% |
| 전체 | 36,666 | 75,186 | 161,119 | 112,385 | 62,759 | 86,905 | 535,020 |
| | 6.9% | 14.1% | 30.1% | 21.0% | 11.7% | 16.2% | 100.0% |

- 전일제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시간제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보다 더 큼.
 - 1주 36시간 이상 노동자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73.0%이고,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58.6%
 - 시간제 노동자가 전일제 노동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서 임금격차가 커질 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표 2-11]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월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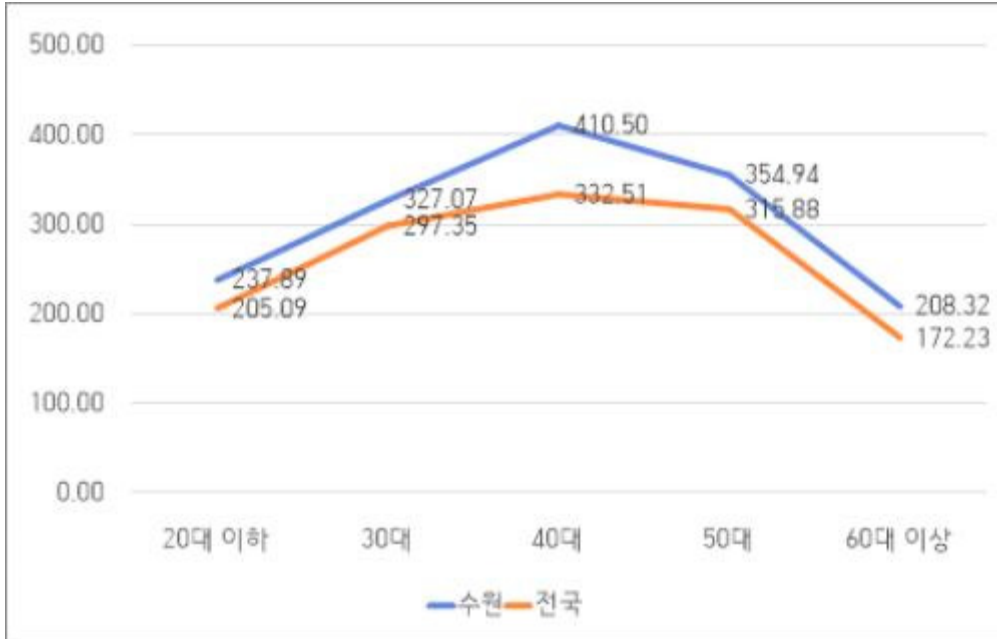
| 전일시간 | 성별 | 평균 | N | 표준편차 | 성별 임금격차 |
|----------------|----|--------|---------|---------|------------|
| 시간제 36시간 미만 | 남자 | 181.61 | 23,049 | 140.225 | 58.6% |
| | 여자 | 106.42 | 56,596 | 71.712 | |
| 전일제 36시간 이상 | 남자 | 399.03 | 282,161 | 244.685 | 73.0% |
| | 여자 | 291.11 | 169,282 | 146.628 | |
| 전체 | 남자 | 382.61 | 305,209 | 245.224 | 64.0% |
| | 여자 | 244.84 | 225,878 | 154.294 | |

(2)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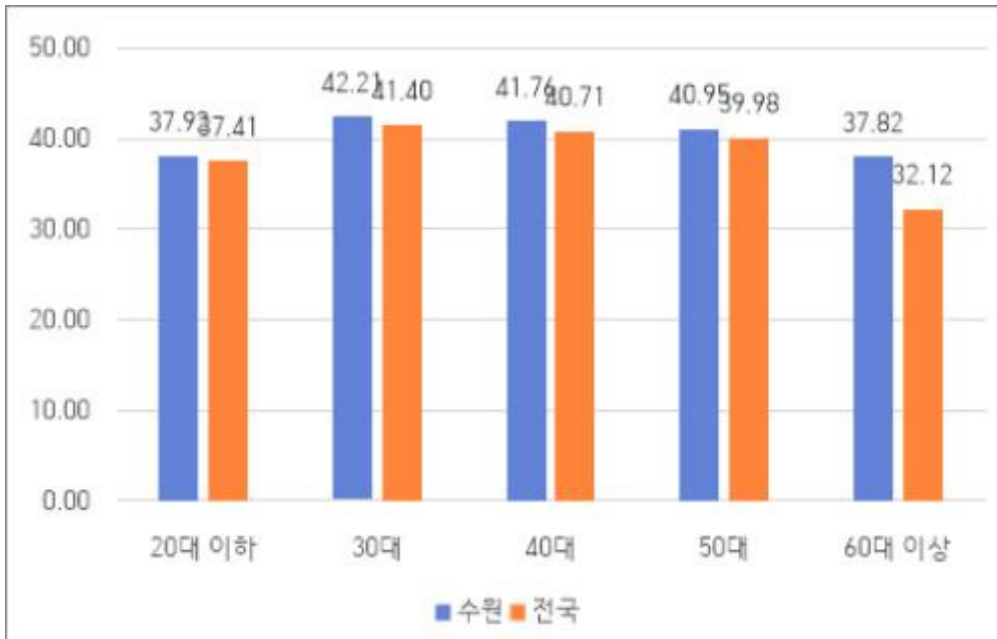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40대의 월 평균임금이 410.5만원으로 가장 높고, 40대와 멀어질수록 임금 수준이 낮아짐
 - 50대가 354.9만 원, 30대가 327.1만 원, 20대가 237.9만 원, 60대 이상이 208.3만 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동시간은 임금보다 연령대별로 격차가 크지 않음. 또한, 근소한 차이나마 30대의 노동시간이 42.2시간으로 가장 길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임금 격차와 상이
 - 40대 41.8시간, 50대 41.0시간, 20대 37.9시간, 60대 37.8시간 순임

- 2021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그림 2-9]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월 평균임금



[그림 2-10]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



- 연령대별-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30대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남녀간에 격차가 가장 적고, 40대 이후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재진입하여도 예전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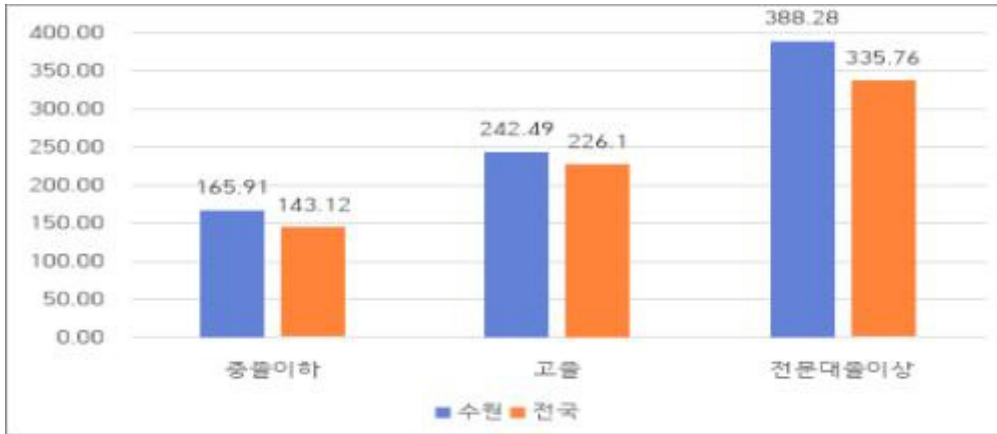
[표 2-12]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연령대별 평균임금

| 연령대 | 성별 | 평균 | 성별 임금격차 |
|--------|----|--------|---------|
| 20대 이하 | 남자 | 270.30 | 77.3% |
| | 여자 | 208.92 | |
| 30대 | 남자 | 356.99 | 79.1% |
| | 여자 | 282.33 | |
| 40대 | 남자 | 486.56 | 59.2% |
| | 여자 | 288.20 | |
| 50대 | 남자 | 440.48 | 54.4% |
| | 여자 | 239.74 | |
| 60대 이상 | 남자 | 240.09 | 66.2% |
| | 여자 | 158.94 | |
| 전체 | 남자 | 381.52 | 64.2% |
| | 여자 | 244.8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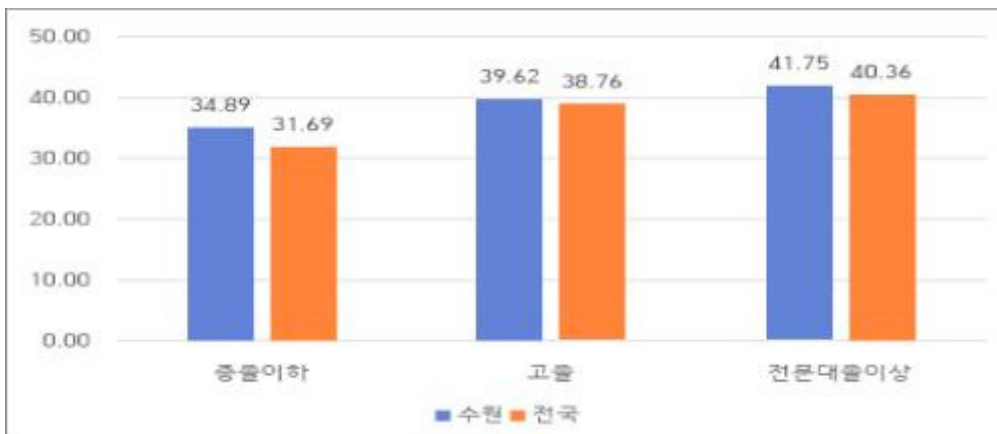
(3)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65.9만 원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42.7%에 불과
- 학력과 노동시간도 정의 관계를 갖기는 하지만 임금처럼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음.

[그림 2-11] 임금노동자 학력별 월 평균임금



[그림 2-12] 임금노동자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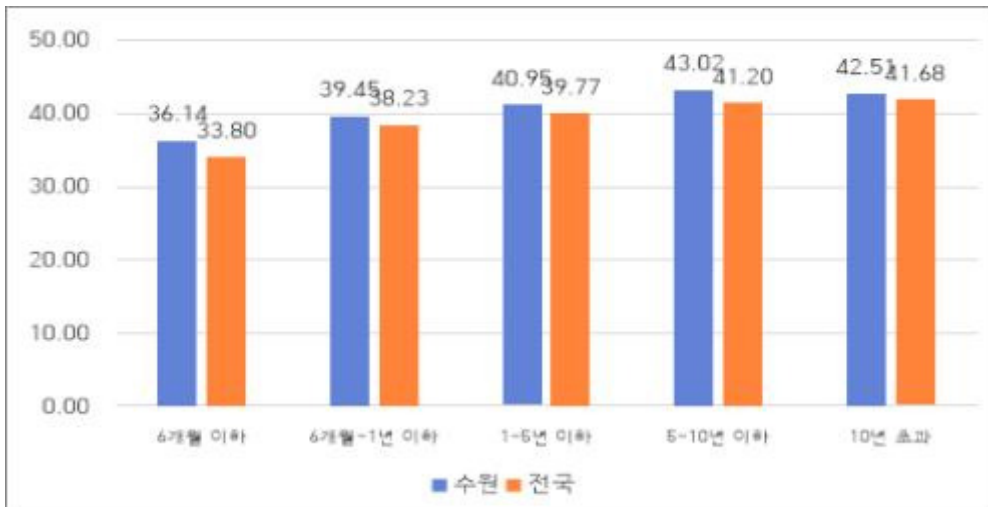
(4) 근무기간별

-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월 평균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노동시간에서는 근무기간과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고,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을 가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5~10년 이하의 재직기간을 가진 노동자에 비해 약간 적음
-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이 좋은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서의 오래 일한다는 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13]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월 평균임금



[그림 2-14]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주당 노동시간



(5) 종사상 지위별

- 수원시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70.5만 원으로 임시직 182.5만 원과 일용직 143.9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음.
 - 임시직의 월 평균임금은 상용직의 49.3%, 일용직은 38.9%

- 주당 노동시간도 임시직과 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각 83.4%와 65.1%로 월 평균임금보다는 그 비율이 높음
- 임시직과 일용직의 상용직과의 임금격차는 노동시간의 장단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용직은 고임금 직무, 임시직과 일용직은 저임금 직무에 종사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13] 임금노동자 종사상 지위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종사상 지위 | 수원시 | | 전국 | |
|--------|----------------|---------------|----------------|---------------|
|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시간 (시)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시간 (시) |
| 상용직 | 370.46 | 42.65 | 325.52 | 41.89 |
| 임시직 | 182.50 | 35.58 | 146.04 | 30.95 |
| 일용직 | 143.93 | 27.77 | 162.08 | 32.35 |
| 전체 | 323.60 | 40.55 | 274.92 | 38.83 |

다. 산업별 차이

- 산업별로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월 평균 640.8만 원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7.2만 원, ‘금융 및 보험업’ 415.6만 원 순임.
-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165.8만 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80.0만 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0.0만 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0.7만 원 순이었음.
-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과 가장 적은 산업의 차이는 475만 원으로 가장 적은 산업이 가장 많은 산업의 25.9% 수준

- 수원시에서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2021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평균임금은 392.4만원으로 2020년 362.7만원보다 3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
 - 2021년 전국의 제조업 평균임금 320.7만원보다는 72만 원 이상 높는데, 이는 수원시 인근의 전자 및 자동차관련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두 번째 규모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2021년 평균임금은 527.2만원으로 수원시 평균임금 323.6만원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 노동자수가 세 번째로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은 237.5만원으로 전국 198.9만원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 중에서 숙박및음식점업(165만원), 부동산업(247만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업(220만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7만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248만원),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220만원), 가구내 고용(180만원)의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임을 확인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들의 경우에는 업종 차원에서의 대책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활임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필요
 -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최저임금제도와 병행하여 지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주 또는 노동자들에게 낮은 인건비/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 내 임금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의 증가, 그리고 지역 내 소비생활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
- 주당 노동시간은 월 평균임금처럼 격차가 크지 않음. ‘운수 및 창고업’이 46.2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35.2시간으로 가장 낮아 그 격차는 11.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산업이 가장 긴 산업의 76.2% 수준

[표 2-14] 임금노동자 산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산업 | 수원시 | | 전국 | |
|-----------------------------------|----------------|---------------|----------------|---------------|
|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 시간(시)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 시간(시)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50.00 | 41.00 | 174.11 | 37.72 |
| 광업 | 250.00 | 40.00 | 329.47 | 42.74 |
| 제조업 | 392.41 | 43.40 | 320.67 | 42.31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640.78 | 40.00 | 423.58 | 40.63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354.24 | 46.24 | 298.12 | 42.48 |
| 건설업 | 305.14 | 41.01 | 286.36 | 40.43 |
| 도매 및 소매업 | 283.37 | 41.08 | 250.74 | 39.37 |
| 운수 및 창고업 | 276.13 | 47.02 | 283.60 | 42.93 |
| 숙박 및 음식점업 | 165.81 | 36.12 | 161.48 | 35.03 |
| 정보통신업 | 378.86 | 41.74 | 379.98 | 41.10 |
| 금융 및 보험업 | 415.56 | 40.96 | 401.04 | 40.23 |
| 부동산업 | 247.27 | 37.65 | 237.77 | 41.45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27.15 | 43.01 | 392.26 | 40.90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20.69 | 42.27 | 215.84 | 40.07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322.31 | 38.88 | 279.34 | 35.56 |
| 교육 서비스업 | 309.15 | 36.12 | 285.94 | 35.00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37.52 | 36.20 | 198.92 | 33.2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48.43 | 35.21 | 209.13 | 35.67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19.96 | 37.86 | 217.17 | 38.82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180.00 | 40.00 | 97.17 | 28.70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359.35 | 40.15 |
| 전체 | 323.60 | 40.55 | 274.92 | 38.83 |

라. 직종별 차이

- 직종별로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관리자’로 570.4만 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413.7만 원, ‘사무종사자’ 358.2만 원 순이었음.

- 산업에서 고임금업종이었던 전문연구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182.5만 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로 188.6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음
- ‘관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임금격차는 월 387.9만 원으로 ‘단순노무 종사자’는 ‘관리자’의 임금의 32.0% 수준
- 노동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로 1주에 54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고, 가장 적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36.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
-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직종별로 노동시간의 격차는 있으나 그 격차가 임금격차만큼 크지 않음
-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 평균임금이 높고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임금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임금노동자 직종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직종 | 수원시 | | 전국 | |
|-------------------|----------------|---------------|----------------|---------------|
|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 시간(시)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 시간(시) |
| 관리자 | 570.40 | 44.50 | 639.37 | 42.22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413.73 | 41.27 | 348.95 | 39.80 |
| 사무 종사자 | 358.17 | 40.87 | 322.52 | 40.47 |
| 서비스 종사자 | 188.63 | 36.77 | 183.59 | 35.44 |
| 판매 종사자 | 240.00 | 38.00 | 219.49 | 37.71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230.00 | 54.00 | 235.81 | 42.17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292.69 | 41.61 | 279.09 | 41.60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298.26 | 43.85 | 287.67 | 43.33 |
| 단순노무 종사자 | 182.46 | 38.55 | 151.47 | 33.59 |
| 전체 | 323.60 | 40.55 | 274.92 | 38.83 |

마.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은 높아지는 것이 확연. 4명 이하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이 199.8만 원인데 반해 300명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은 485.4만 원으로 4인 이하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1.2%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주당 노동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4인 이하 사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이 37.3시간으로 300명 이상 사업체 노동시간 42.2시간에 비해 4.9시간으로 그 격차는 10% 수준에 불과

[표 2-16]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사업체 규모 | 수원시 | | 전국 | |
|----------|----------------|---------------|----------------|---------------|
|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 시간(시) | 월 평균임금 (만원) | 주당노동 시간(시) |
| 1~4명 | 199.84 | 37.30 | 181.43 | 35.36 |
| 5~9명 | 252.50 | 40.69 | 223.80 | 37.97 |
| 10~29명 | 276.65 | 39.63 | 256.24 | 38.62 |
| 30~99명 | 319.42 | 41.54 | 292.76 | 39.98 |
| 100~299명 | 368.22 | 41.26 | 332.46 | 41.39 |
| 300명 이상 | 485.40 | 42.23 | 422.04 | 41.32 |
| 전체 | 323.60 | 40.55 | 274.92 | 38.83 |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앞서 분류한 원칙에 따라 수원시 임금노동자 535,021명의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347,118명이 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은 184,825명으로 확인됨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5%

[표 3-1]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 구분 | | 상용 | 임시 | 일용 | 전체 |
|----------|----------|---------|--------|--------|---------|
| 고용 계약 | 정함 | 39,901 | 39,681 | 3,322 | 82,904 |
| | 정하지 않음 | 367,537 | 59,526 | 25,054 | 452,117 |
| 노동 시간 | 시간제_36미만 | 22,232 | 38,381 | 19,032 | 79,645 |
| | 전일제_36이상 | 382,129 | 59,969 | 9,345 | 421,443 |
| 정규직 | | 350,195 | 0 | 0 | 347,118 |
| 비정규직 | | 57,243 | 99,206 | 28,377 | 184,825 |
| 전체 | | 407,438 | 99,206 | 28,377 | 535,021 |

* 상용직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중복 제거

- 2017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8.8%에서 2021년에는 34.5%로 변화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다만, 2018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32.0%, 2020년에는 55.8%로 증감폭이 심해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추세가 완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1.2%로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 다만, 2017년 이후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대비 약간 높거나 낮은 것이 반복되었으므로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보다 높거나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그림 3-1] 2017-2021년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비율



나. 성별 차이

-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 남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2021년 27.2%로 전년 33.0%에 비해 2.8%p 감소하였고, 전국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33.9%와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편
- 수원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21년 44.5%로 전년 52.5%에 비해 8.0%p 낮아짐.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50.1%에 비해서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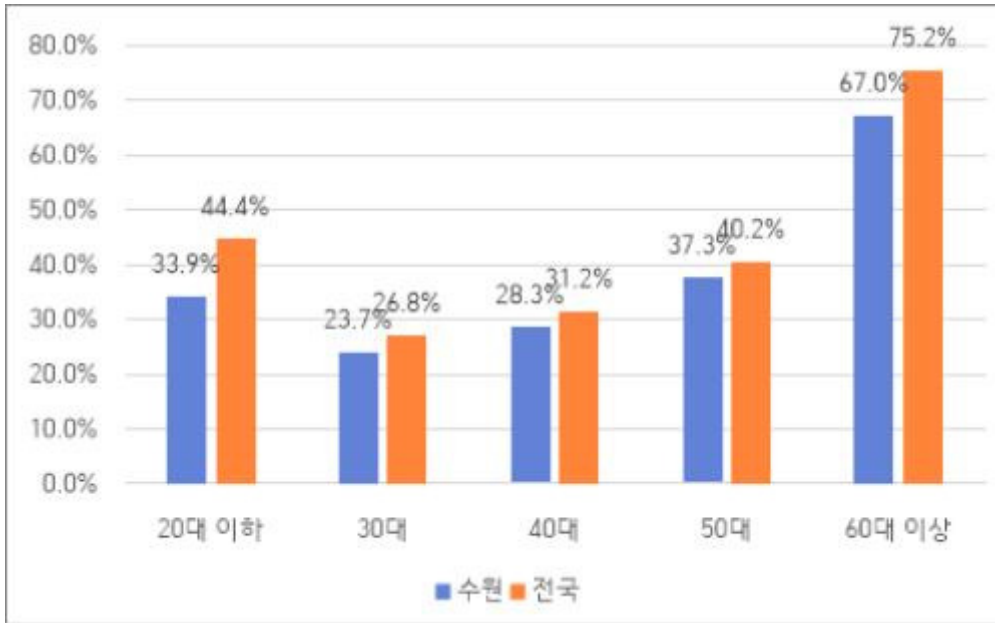
[표 3-2] 임금노동자 성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성별 | | 정규직 | 비정규직(a) | 전체노동자(b) | (a/b) |
|----|----|-----------|-----------|------------|-------|
| 수원 | 남성 | 224,338 | 83,908 | 308,246 | 27.2% |
| | 여성 | 125,858 | 100,917 | 226,775 | 44.5% |
| 전국 | 남성 | 7,529,110 | 3,862,338 | 11,391,448 | 33.9% |
| | 여성 | 4,618,702 | 4,636,419 | 9,255,121 | 50.1% |

다.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23.7%로 가장 낮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33.9%로 거의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대 이하 전국 평균 44.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은 67.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년도 71.4%와 비교하면 약간 감소
 - 6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정년퇴임 연령 이후의 재취업이라는 점, 신체적 기능 저하로 장시간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60세 이후 정규직 고용 기회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은 67%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대와 함께 고령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 평균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
 - 고령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화 보다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근무여건 개선(휴식휴게시간의 충분한 보장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권리 등)을 위한 고민들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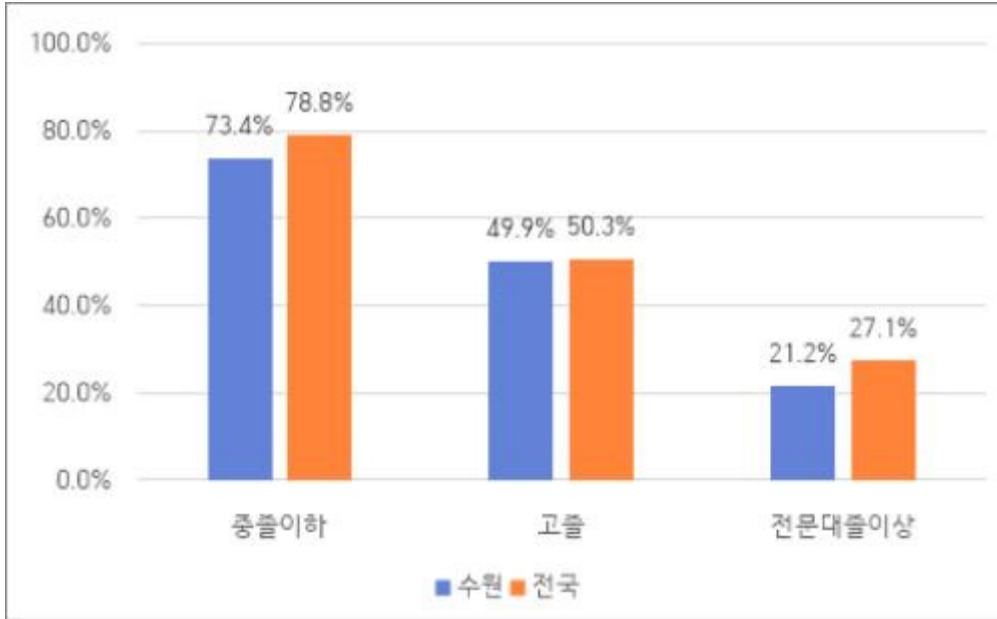
[그림 3-2]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라. 학력별 차이

-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에서는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는 사실상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즉,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령층 노동자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 수원시는 전체 학력구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임.
 - 반대로 고졸 학력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0.4%p 낮은 것에 불과해 전국 수준과 가장 적은 격차를 보임
 - 중졸 이하 노동자들은 73.4%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그림 3-3] 임금노동자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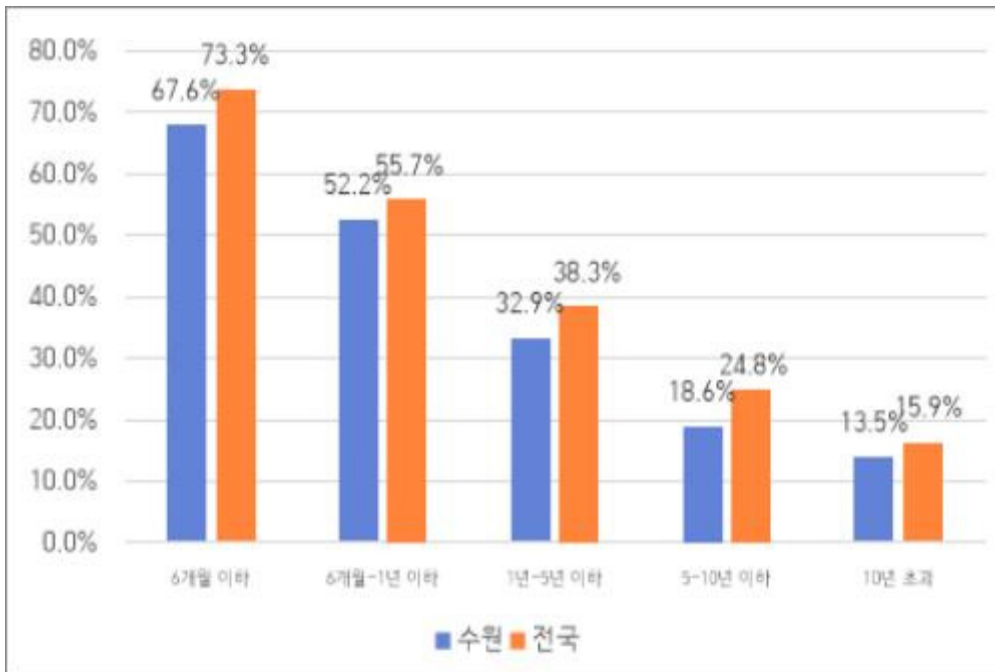


마. 근무기간별 차이

-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을 확인한 결과 취업 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 1~5년 이하까지 근무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
 - 이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수인데다, 단기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현 직장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일관되게 낮아지고 있음
 - 아울러 전국의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했을 때, 6개월~1년 이하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수원시에서 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0년 초과인 장기근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15.5%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현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임시일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통계청의 조사지침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나 4대 보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는 노동자로 추정(통계청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미가입이거나, 퇴직금 미지급 대상 등 공식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분류)

[그림 3-4]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바. 산업별 차이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수원시에서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2021년 비정규직 비율은 11.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두 번째로 노동자수가 많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8.4%로 낮은 편이며, 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51.2%로 2020년 63.1%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건설업의 경우 2019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수원시 뿐 아니라 대체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

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8시간의 표준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

- 2020년 수원시에서 1만 명 이상이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산업으로는 운수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지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업종
- 업종별로 전국 평균과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수원시의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임
 - 그중에서도 제조업과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표 3-3] 임금노동자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산업 | 수원 | | 전국 | |
|-----------------|--------------|------------|--------------|------------|
| | 비정규직 노동자수 |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노동자수 | 비정규직 비율 |
| 농림어업 | 0 | | 79,138 | 77.9% |
| 광업 | 0 | | 2,722 | 22.1% |
| 제조업 | 10,605 | 11.9% | 790,071 | 20.2% |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0 | | 8,476 | 13.6%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863 | 24.0% | 37,807 | 24.4% |
| 건설업 | 25,698 | 51.2% | 935,762 | 56.1% |
| 도소매업 | 15,431 | 32.4% | 852,678 | 40.2% |
| 운수및창고업 | 10,368 | 44.2% | 327,957 | 35.9% |
| 숙박 및 음식점업 | 22,837 | 69.2% | 889,668 | 69.8% |

| 산업 | 수원 | | 전국 | |
|-------------------|--------------|------------|--------------|------------|
| | 비정규직 노동자수 |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노동자수 | 비정규직 비율 |
| 정보통신업 | 3,815 | 14.5% | 167,908 | 20.8% |
| 금융보험업 | 8,083 | 45.1% | 329,630 | 41.9% |
| 부동산업 | 6,188 | 62.4% | 199,025 | 54.6% |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4,794 | 8.4% | 200,541 | 19.2% |
|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업 | 15,221 | 45.8% | 743,202 | 59.2% |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 5,334 | 24.7% | 427,203 | 36.9% |
| 교육서비스업 | 17,078 | 42.9% | 697,383 | 45.3%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3,185 | 43.4% | 1,229,208 | 51.3%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4,389 | 62.2% | 189,092 | 59.4% |
|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10,596 | 53.6% | 303,974 | 46.6%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340 | 100.0% | 85,548 | 99.3%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1,764 | 12.0% |
| 합계 | 184,825 | 34.5% | 8,498,757 | 41.2% |

사. 직종별 차이

- 수원시의 직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1.0%로 평균보다 낮은 편
- ‘사무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17.8%에 불과하고 제조업 기능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도 비정규직 비율이 21.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반면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직업 중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직종에서 2021년 비정규직 비율은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서비스종사자는 67.1%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음
-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표 3-4] 임금노동자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 직업 | 수원 | | 전국 | |
|-------------|--------------|------------|--------------|------------|
| | 비정규직 노동자수 |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 노동자수 | 비정규직 비율 |
| 관리자 | 867 | 11.6% | 54,018 | 14.8%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36,072 | 21.0% | 1,258,413 | 27.1% |
| 사무종사자 | 21,604 | 17.8% | 875,284 | 19.7% |
| 서비스종사자 | 26,021 | 67.1% | 1,248,752 | 61.5% |
| 판매종사자 | 19,629 | 66.1% | 930,053 | 58.3%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 27,923 | 53.7%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18,933 | 46.2% | 784,268 | 44.4% |
|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 9,242 | 21.0% | 503,920 | 23.8% |
| 단순노무 종사자 | 52,456 | 65.1% | 2,816,125 | 77.7% |
| 합계 | 184,824 | 34.5% | 8,498,756 | 41.2% |

- 직종별-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전 직종에서 모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직종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이 가장 뚜렷한 직종은 '관리자', '판매종사자'로 나타남

[표 3-5] 수원시 임금노동자 직종별-성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정규 직(%) | 남성 대비 여성의 '비정규직/정규직' |
|----------------|----|--------|--------|-----------------|-------------------------|
| 관리자 | 남자 | 5,694 | 447 | 7.9% | 6.00 |
| | | 92.7% | 7.3% | | |
| | 여자 | 886 | 420 | 47.4% | |
| | | 67.8% | 32.2% | |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남자 | 85,300 | 14,723 | 17.3% | 2.44 |
| | | 85.3% | 14.7% | | |
| | 여자 | 50,472 | 21,349 | 42.3% | |
| | | 70.3% | 29.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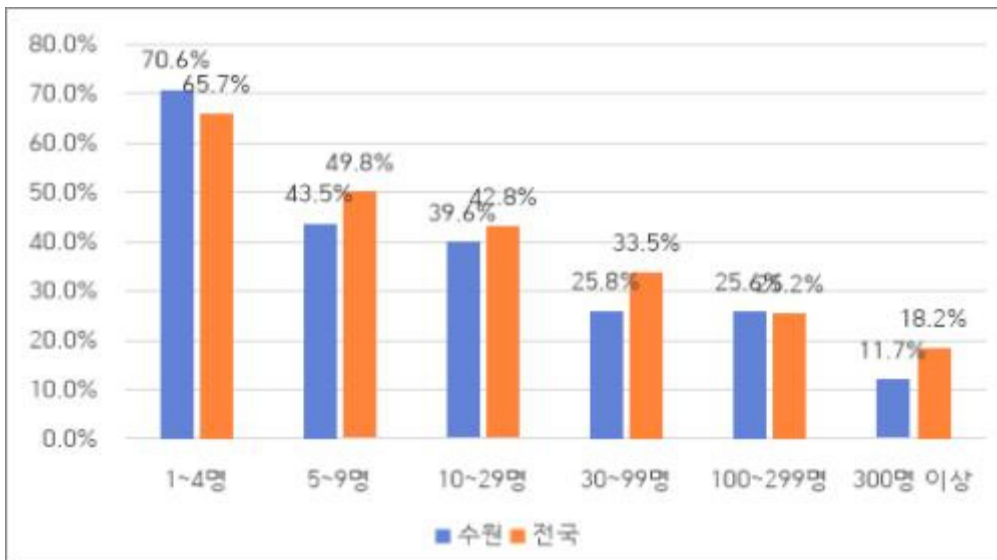
●● 2021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정규 직(%) | 남성 대비 여성의 '비정규직/정규직' |
|----------------------|----|---------|---------|-----------------|-------------------------|
| 사무종사자 | 남자 | 50,474 | 8,520 | 16.9% | 1.57 |
| | | 85.6% | 14.4% | | |
| | 여자 | 49,061 | 13,084 | 26.7% | |
| | | 78.9% | 21.1% | | |
| 서비스종사자 | 남자 | 7,523 | 6,144 | 81.7% | 4.62 |
| | | 55.0% | 45.0% | | |
| | 여자 | 5,264 | 19,877 | 377.6% | |
| | | 20.9% | 79.1% | | |
| 판매종사자 | 남자 | 6,824 | 3,961 | 58.0% | 8.33 |
| | | 63.3% | 36.7% | | |
| | 여자 | 3,240 | 15,668 | 483.6% | |
| | | 17.1% | 82.9% | |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남자 | | | | |
| | 여자 | 466 | | | |
| | | 100.0% | | | |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남자 | 20,757 | 17,694 | 85.2% | 1.12 |
| | | 54.0% | 46.0% | | |
| | 여자 | 1,291 | 1,239 | 96.0% | |
| | | 51.0% | 49.0% | | |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남자 | 29,609 | 7,926 | 26.8% | 0.93 |
| | | 78.9% | 21.1% | | |
| | 여자 | 5,241 | 1,317 | 25.1% | |
| | | 79.9% | 20.1% | | |
| 단순노무 종사자 | 남자 | 18,157 | 24,493 | 134.9% | 2.08 |
| | | 42.6% | 57.4% | | |
| | 여자 | 9,936 | 27,963 | 281.4% | |
| | | 26.2% | 73.8% | | |
| 전체 | 남자 | 224,338 | 83,908 | 37.4% | 2.14 |
| | | 72.8% | 27.2% | | |
| | 여자 | 125,857 | 100,917 | 80.2% | |
| | | 55.5% | 44.5% | | |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4명 이하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70.6%인데 반해,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11.7%로 6배 이상의 차이
- 수원시의 5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는데 반해, 4명 이하 규모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4.9%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11.7%로 전국 평균 18.2%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결국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만, 오히려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수원시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

[그림 3-5]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2)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비교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먼저 정규직의 경우 2018년 340.3만원에서 2021년에는 384.9만원으로 약 44.6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8년 183.8만원에서 2021년 207.5만원으로 약 23.7만원 인상. 2020년에 전년 대비 약 34만원이 인상되었다가 2021년에는 큰 폭(44.8만 원)으로 하락하여 예년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
 - 2020년 수원시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임금도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2019년까지 정규직이었던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짐
 -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저하로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3-6] 2017년~2021년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 구분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전국 2021년 |
|-------------------|---------|-------|-------|-------|-------|-------------|
| 월평균 임금 (만원) | 정규직(a) | 340.3 | 369.8 | 371.3 | 384.9 | 340.8 |
| | 비정규직(b) | 183.8 | 218.4 | 252.3 | 207.5 | 180.7 |
| | 평균 | 290.3 | 307.7 | 307.4 | 323.6 | 274.9 |
| | b/a(%) | 54.0% | 59.1% | 68.0% | 53.9% | 53.0% |

- 노동시간을 고려한 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후술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평균시급을 계산하여 비교

- 2021년 수원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시급은 각각 17,029원과 11,469원으로 계산되며,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시급은 67.3% 수준으로 차이가 있음
- 2020년 정규직 평균시급은 16,702원에서 2021년 17,029원으로 약 957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평균시급은 2020년 15,083원에서 2021년 11,469원으로 약 3,614원 감소
 - 학력이나 숙련, 작업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 해당 산업 및 회사 규모 등의 사업체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임금격차를 검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90.3%를 받다가, 2021년에는 67.3%로 임금격차가 발생

[그림 3-6]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평균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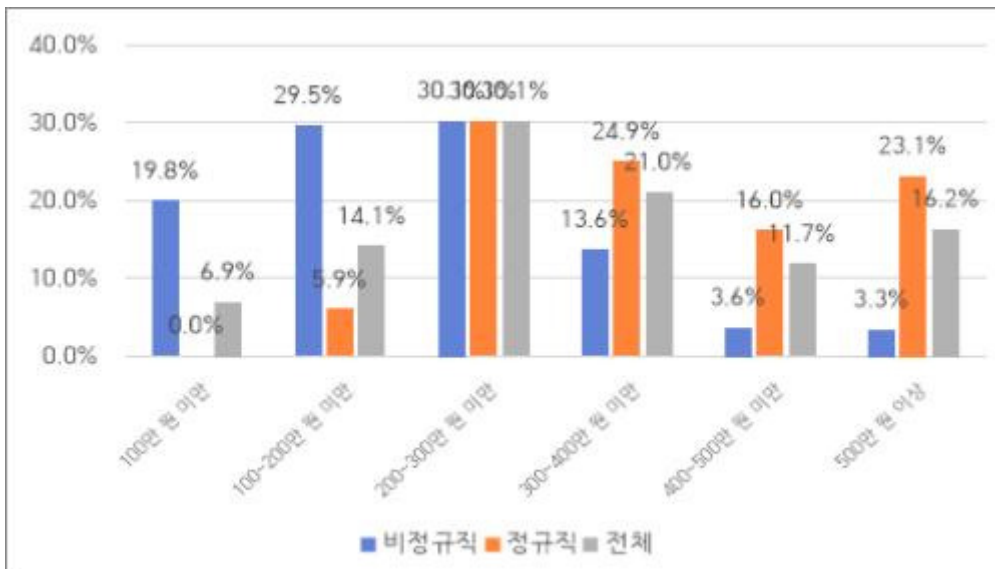
- * 시급계산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
- * 격차는 정규직 시급 대비 비정규직 시급을 의미

-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분포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고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살펴봄

●● 2021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209시간 기준 월 182만 2,480원이며,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의 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층으로 확인하였고 100만원 단위로 고용형태별 노동자 분포를 확인
- 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20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비율은 21.0%인데, 정규직은 5.3%인 반면, 비정규직은 49.3%가 월 200만 원 미만
 - 반면 월 400만 원 이상은 정규직은 39.1%인 반면, 비정규직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비정규직은 100~3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전체의 5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데 반해, 정규직은 200~4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5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백만 원 단위로 구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살펴봐도 약 100만 원 이상의 임금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차원의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

[그림 3-7]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구간별 비율



나. 성별 차이

- 남성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424.4만원으로 전국 남성 정규직 380.2만원보다도 높았으며, 여성 정규직 평균임금도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수원시의 평균임금이 높은 편. 전반적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
- 2021년 수원시 남성 정규직 임금 424.4만원과 비교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158.0만원은 약 260만원의 차이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7.2%에 불과

[표 3-7]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 고용형태 | 수원 | | 전국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정규직 | 424.4 | 314.5 | 380.2 | 276.6 |
| 비정규직 | 267.0 | 158.0 | 224.4 | 144.4 |

다. 연령대별 차이

- 정규직 임금은 40대가 459.9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다음으로 50대가 442.8만원으로 30대 358.7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 즉,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공급에 따라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정규직이 30대 정규직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음
- 다만 40대 정규직이 가장 높은 것은, 50대 정규직 중에서는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한 정규직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즉,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데, 50대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연공급제 속성의 임금상승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들과, 퇴직 후 과거보다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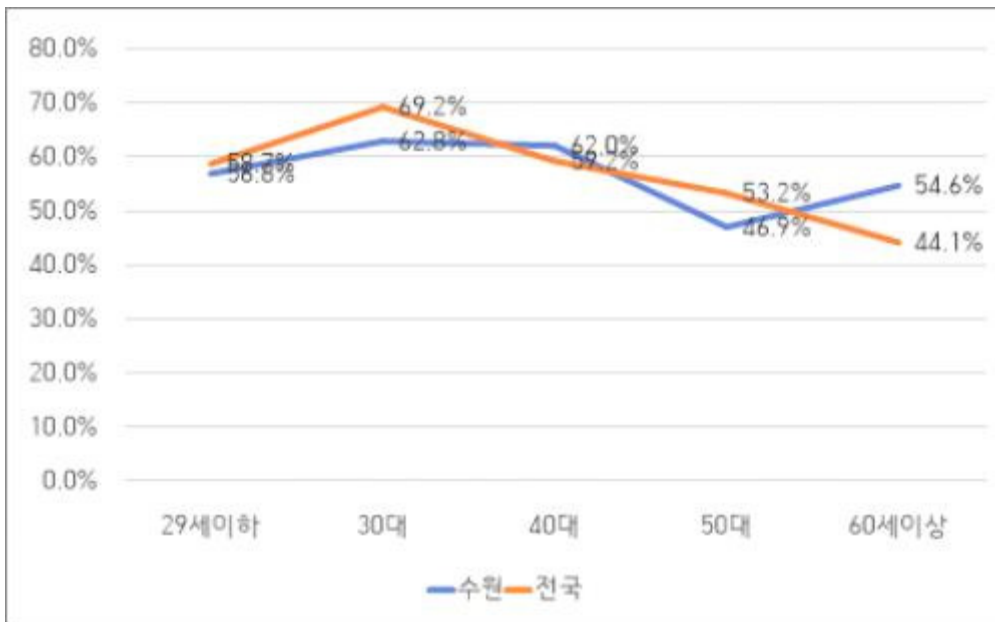
- 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혼재되어 같은 연령대의 평균임금을 낮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수원시 비정규직 평균임금도 40대가 285.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 60대 이상, 20대의 순서였음
 - 월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을 비교해보면, 수원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60세 이상에서 더 높은 임금수준을 보임
 - 반면에 전국 수준에서는 비정규직일 경우 20대가 60대보다 월 평균임금이 높음. 즉, 수원에서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낮거나 6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수원시의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표 3-8] 임금노동자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고용형태 | | 29세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 수원 | 정규직(a) | 278.7 | 358.7 | 459.9 | 442.8 | 299.5 |
| | 비정규직(b) | 158.2 | 225.3 | 285.1 | 207.5 | 163.4 |
| | 평균 | 237.9 | 327.1 | 410.5 | 354.9 | 208.3 |
| | b/a(%) | 56.8% | 62.8% | 62.0% | 46.9% | 54.6% |
| 전국 | 정규직(a) | 251.3 | 324.1 | 381.0 | 389.1 | 297.1 |
| | 비정규직(b) | 147.4 | 224.3 | 225.5 | 207.1 | 131.1 |
| | 평균 | 205.1 | 297.4 | 332.5 | 315.9 | 172.2 |
| | b/a(%) | 58.7% | 69.2% | 59.2% | 53.2% | 44.1% |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30대에서 가장 적고, 50대 이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3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같은 연령대 정규직 노동자의 70.2%인데 반해, 50대와 60대에서는 각 46.9%, 54.6%로 절반 수준임
- 전국 수준에서는 50대보다 60대 이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컸으나, 수원에서는 그 반대. 수원은 업종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산업에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는데, 이 산업 및 직종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그림 3-8]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라. 학력별 차이

- 학력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수원시 노동자들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수

준을 보임. 다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높은 수준

- 정규직 임금수준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계산해보면, 전국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적고,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격차가 커지는데 반해, 수원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수원시의 저학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표 3-9]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고용형태 |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이상 |
|------|---------|-------|-------|--------|
| 수원 | 정규직(a) | 223.7 | 304.4 | 420.3 |
| | 비정규직(b) | 144.9 | 180.2 | 269.7 |
| | 평균 | 165.9 | 242.5 | 388.3 |
| | b/a(%) | 64.8% | 59.2% | 64.2% |
| 전국 | 정규직 | 228.4 | 284.9 | 374.3 |
| | 비정규직 | 122.9 | 173.3 | 236.3 |
| | 평균 | 148.2 | 233.0 | 339.6 |
| | b/a(%) | 53.8% | 60.8% | 63.1% |

마. 근무기간별 차이

-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노동자들보다 그 이상의 재직기간을 가진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다소 감소
-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1년 이하의 재직기간을 가진 경우 정규직 대비 60% 수준인데 반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7.4%, 10년을 초과한 경우 69.3% 수준

- 전국 수준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

[표 3-10]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고용형태 | | 6개월 이하 | 6개월~1년 이하 | 1~5년 이하 | 5~10년 이하 | 10년 초과 |
|------|---------|--------|-----------|---------|----------|--------|
| 수원 | 정규직(a) | 268.9 | 333.7 | 305.0 | 376.0 | 513.2 |
| | 비정규직(b) | 176.3 | 192.3 | 194.5 | 253.4 | 355.9 |
| | 평균 | 206.3 | 259.9 | 268.6 | 353.2 | 491.9 |
| | b/a(%) | 65.6% | 57.6% | 63.8% | 67.4% | 69.3% |
| 전국 | 정규직(a) | 265.03 | 271.14 | 287.75 | 329.76 | 441.99 |
| | 비정규직(b) | 148.44 | 173.54 | 188.52 | 219.90 | 285.16 |
| | 평균 | 179.55 | 216.80 | 249.77 | 302.47 | 417.09 |
| | b/a(%) | 56.0% | 64.0% | 65.5% | 66.7% | 64.5% |

바. 산업별 차이⁶⁾

- 수원시에서 가장 임금노동자 수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은 390.6만 원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405.8만원으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이례적. 다만, 2020년 이전의 수원시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면, 최소한 제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6) 산업별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제조업에서 전국 평균과의 상당한 차이는 수원이 가진 산업적 특성 때문. 즉, 수원시 인근의 전자 및 자동차 관련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각 33.7%, 41.7%, 49.7%임

[표 3-11]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
| 농림어업 | 비정규직(b) | | 137.01 | 부동산업 | 비정규직(b) | 217.48 | 196.09 |
| | 정규직(a) | 350.00 | 304.68 | | 정규직(a) | 296.79 | 287.94 |
| | b/a(%) | | 45.0% | | b/a(%) | 73.3% | 68.1% |
| 광업 | 비정규직(b) | | 280.20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비정규직(b) | 360.72 | 298.35 |
| | 정규직(a) | 250.00 | 343.45 | | 정규직(a) | 542.51 | 414.52 |
| | b/a(%) | | 81.6% | | b/a(%) | 66.5% | 72.0% |
| 제조업 | 비정규직(b) | 405.81 | 230.68 | 사업시설 관리및 지원 대서비스 | 비정규직(b) | 181.69 | 180.89 |
| | 정규직(a) | 390.61 | 343.41 | | 정규직(a) | 253.71 | 266.64 |
| | b/a(%) | 103.9% | 67.2% | | b/a(%) | 71.6% | 67.8% |
| 전기가스 증기및공기 조절공급업 | 비정규직(b) | | 305.14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 비정규직(b) | 157.17 | 117.01 |
| | 정규직(a) | 640.78 | 442.18 | | 정규직(a) | 376.50 | 374.34 |
| | b/a(%) | | 69.0% | | b/a(%) | 41.7% | 31.3% |
| 수도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비정규직(b) | 250.03 | 230.40 | 교육 서비스업 | 비정규직(b) | 192.98 | 174.30 |
| | 정규직(a) | 387.05 | 319.97 | | 정규직(a) | 396.32 | 378.58 |
| | b/a(%) | 64.6% | 72.0% | | b/a(%) | 48.7% | 46.0% |
| 건설업 | 비정규직(b) | 235.66 | 236.79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비정규직(b) | 160.83 | 123.76 |
| | 정규직(a) | 377.95 | 349.75 | | 정규직(a) | 296.42 | 278.12 |
| | b/a(%) | 62.4% | 67.7% | | b/a(%) | 54.3% | 44.5% |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
| 도소매업 | 비정규직(b) | 191.49 | 169.02 |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 비정규직(b) | 142.52 | 152.69 |
| | 정규직(a) | 327.33 | 305.60 | | 정규직(a) | 422.85 | 291.86 |
| | b/a(%) | 58.5% | 55.3% | | b/a(%) | 33.7% | 52.3% |
| 운수및 창고업 | 비정규직(b) | 245.42 | 219.55 |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비정규직(b) | 149.61 | 156.97 |
| | 정규직(a) | 300.45 | 319.53 | | 정규직(a) | 301.26 | 269.66 |
| | b/a(%) | 81.7% | 68.7% | | b/a(%) | 49.7% | 58.2% |
| 숙박및 음식점업 | 비정규직(b) | 130.11 | 125.18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비정규직(b) | | 96.52 |
| | 정규직(a) | 246.17 | 245.34 | | 정규직(a) | 180.00 | 194.41 |
| | b/a(%) | 52.9% | 51.0% | | b/a(%) | | 49.6% |
| 정보통신업 | 비정규직(b) | 299.51 | 301.00 | 국제 및 외국기관 | 비정규직(b) | | 220.62 |
| | 정규직(a) | 392.33 | 400.75 | | 정규직(a) | | 378.24 |
| | b/a(%) | 76.3% | 75.1% | | b/a(%) | | 58.3% |
| 금융보험업 | 비정규직(b) | 270.59 | 269.96 | 전체 | 비정규직(b) | 207.50 | 180.73 |
| | 정규직(a) | 534.75 | 495.50 | | 정규직(a) | 384.87 | 340.82 |
| | b/a(%) | 50.6% | 54.5% | | b/a(%) | 53.9% | 53.0% |

사. 직종별 차이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노동자와 가장 임금격차가 적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로 정규직 대비 임금이 75.2%. 가장 임금 격차가 큰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정규직 대비 임금이 50.3%에 불과
- 전국 수준에서는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고 숙련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직종 노동자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적게 나타남.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각 76.3%와 72.8%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
- 전국 수준에서도 ‘서비스 종사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큼

[표 3-12]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1

| 고용형태 | | 관리자 | 전문가및 관련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
| 수원 | 정규직(a) | 598.01 | 445.56 | 384.71 | 282.85 | 316.93 |
| | 비정규직(b) | 360.71 | 293.91 | 235.89 | 142.33 | 200.56 |
| | 평균 | 570.40 | 413.73 | 358.17 | 188.63 | 240.00 |
| | b/a(%) | 60.3% | 66.0% | 61.3% | 50.3% | 63.3% |
| 전국 | 정규직(a) | 643.04 | 386.30 | 346.87 | 268.99 | 284.63 |
| | 비정규직(b) | 618.22 | 248.26 | 223.27 | 130.08 | 172.94 |
| | 평균 | 639.37 | 348.95 | 322.52 | 183.59 | 219.49 |
| | b/a(%) | 96.1% | 64.3% | 64.4% | 48.4% | 60.8% |

[표 3-13]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2

| 고용형태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
|------|---------|---------------|----------------|-------------------|-------------|
| 수원 | 정규직(a) | 230.00 | 330.58 | 330.21 | 225.90 |
| | 비정규직(b) | | 248.57 | 177.75 | 159.20 |
| | 평균 | 230.00 | 292.69 | 298.26 | 182.46 |
| | b/a(%) | | 75.2% | 53.8% | 70.5% |
| 전국 | 정규직(a) | 283.77 | 311.79 | 307.94 | 225.20 |
| | 비정규직(b) | 194.41 | 238.15 | 222.75 | 130.31 |
| | 평균 | 235.81 | 279.09 | 287.67 | 151.47 |
| | b/a(%) | 68.5% | 76.4% | 72.3% | 57.9% |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커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적어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규모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55.6%의 임금을 받는데 반해, 사업

- 체 규모가 커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어 300명 이상 사업체에 서는 72.9%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
-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와 고용 형태라는 이중의 임금 격차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음
 - 4명 이하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명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2.3%로 1/3도 되지 않는 수준
 -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위 한 수원시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전국 수준에서 살펴보아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는 수원시와 같은 수준

[표 3-14]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및 비율

| 고용형태 | | 1~4명 | 5~9명 | 10~29명 | 30~99명 | 100~299명 | 300명 이상 |
|------|---------|--------|--------|--------|--------|----------|---------|
| 수원 | 정규직(a) | 291.25 | 307.62 | 328.13 | 348.73 | 400.78 | 501.35 |
| | 비정규직(b) | 161.82 | 180.83 | 198.23 | 235.05 | 273.44 | 365.27 |
| | 평균 | 199.84 | 252.50 | 276.65 | 319.42 | 368.22 | 485.40 |
| | b/a(%) | 55.6% | 58.8% | 60.4% | 67.4% | 68.2% | 72.9% |
| 전국 | 정규직(a) | 254.85 | 281.67 | 313.98 | 337.23 | 362.67 | 451.15 |
| | 비정규직(b) | 143.19 | 165.55 | 179.13 | 204.61 | 242.65 | 290.80 |
| | 평균 | 181.43 | 223.80 | 256.24 | 292.76 | 332.46 | 422.04 |
| | b/a(%) | 56.2% | 58.8% | 57.1% | 60.7% | 66.9% | 64.5% |

3)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비교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주당 노동시간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의 주당노동시간은 2018년 44.6시간에서 2021년 43.6시간으로 1시간

(2.2%) 감소.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2018년 37.2시간에서 2021년 34.9시간으로 2.3시간(6.2%) 감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 다만 비정규직의 감소 폭이 정규직보다 큼
-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임금도 2020년은 물론 2019년에 비해서도 감소

[표 3-15]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구분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전국 2021년 |
|-------------------|------|-------|-------|-------|-------|-------------|
| 주당 노동시간 (시) | 정규직 | 44.6 | 44.0 | 44.0 | 43.6 | 42.9 |
| | 비정규직 | 37.2 | 37.8 | 34.4 | 34.8 | 33.0 |
| | 평균 | 42.2 | 41.4 | 38.8 | 40.6 | 38.8 |

나. 성별 차이

- 수원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별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주당노동시간은 42.7시간으로 여성 37.6시간보다 일주일에 약 5.1시간 정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수원이 조금 적은 편
-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시간 정도만 더 일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8.9시간으로 남성이 더 많이 일하고 있음
- 그리고 남성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차이가 전년과 비교해 작아지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차이는 약 10시간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년 대비 노동시간 감소폭이 큰 편이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근무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원시 여성 비정규직들은 전국 여성 비정규직 노동시간보다 2.8시간이 길게 일하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의 함의는 기혼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의 경험과 이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남성들은 가사업무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들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음
- 2017년 이후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노동시간 감소. 주 52시간 근무 상한이 향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3-16] 임금노동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고용형태 | 수원 | | 전국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정규직 | 44.0 | 42.7 | 43.5 | 42.0 |
| 비정규직 | 39.2 | 31.3 | 36.8 | 29.8 |
| 평균 | 42.7 | 37.6 | 41.2 | 35.9 |

다. 연령대별 차이

- 정규직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45.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대 이하가 42.3시간으로 가장 짧아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규직 노동시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음
- 60세 이상의 경우 정규직은 (최상층) 관리자가 다수이면서, 노동시간이 길었을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짐

- 비정규직의 경우 30대가 38.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대 이하는 29.3시간으로 가장 노동시간이 짧음
- 전국 수준에서는 60대 비정규직이 20대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는데, 수원에서는 20대 이하가 더 짧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원은 업종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산업에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는데, 이 산업 및 직종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임금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표 3-17]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고용형태 | | 29세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 수원 | 정규직 | 42.3 | 43.5 | 43.6 | 44.1 | 45.7 |
| | 비정규직 | 29.3 | 38.0 | 37.2 | 35.6 | 33.9 |
| | 평균 | 37.9 | 42.2 | 41.8 | 40.9 | 37.8 |
| 전국 | 정규직 | 33.0 | 42.5 | 42.9 | 42.9 | 43.0 |
| | 비정규직 | 31.0 | 37.4 | 35.8 | 35.4 | 28.3 |
| | 평균 | 37.4 | 41.4 | 40.7 | 40.0 | 32.1 |

라. 학력별 차이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학력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임. 그런데 정규직의 경우 정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임
-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7.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고졸 44.2시간, 전문대졸 이상은 43.2시간

-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김
- 중졸 이하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은 고령의 저학력 노동자들이 육체적인 부담으로 인해 단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일 가능성
- 한편, 학력이 낮은 정규직은 대체로 시간당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에 소득보전을 위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학력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에 노동시간이 짧을 가능성도 있음
- 정규직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주당노동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당노동시간이 긴 패턴은 전국 평균에서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표 3-18] 임금노동자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고용형태 |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이상 |
|------|------|------|------|--------|
| 수원 | 정규직 | 47.1 | 44.2 | 43.2 |
| | 비정규직 | 30.7 | 35.0 | 36.4 |
| | 평균 | 34.9 | 39.6 | 41.8 |
| 전국 | 정규직 | 44.6 | 43.8 | 42.4 |
| | 비정규직 | 28.2 | 33.8 | 34.8 |
| | 평균 | 31.7 | 38.8 | 40.4 |

마. 근무기간별 차이

- 정규직은 현 직장에서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을 가진 노동자를 제외하고 43~44시간으로 근무기간과는 크게 상관없이 비슷하였고, 비정규직은 대체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 전국 수준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 정규직 노동자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42.7~43.4시간의 노동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6개월 이하 근무기간을 가진 노동자는 30.4시간, 10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을 가진 노동자는 36.2시간으로 상당히 큰 폭의 차이를 보임

[표 3-19] 임금노동자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고용형태 | | 6개월 이하 | 6개월~1년 이하 | 1~5년 이하 | 5~10년 이하 | 10년 초과 |
|------|------|--------|-----------|---------|----------|--------|
| 수원 | 정규직 | 43.3 | 45.2 | 43.4 | 43.8 | 43.4 |
| | 비정규직 | 32.8 | 34.2 | 36.0 | 39.9 | 36.5 |
| | 평균 | 36.1 | 39.5 | 41.0 | 43.0 | 42.5 |
| 전국 | 정규직 | 43.1 | 43.4 | 43.0 | 43.0 | 42.7 |
| | 비정규직 | 30.4 | 34.1 | 34.5 | 35.9 | 36.2 |
| | 평균 | 33.8 | 38.2 | 39.8 | 41.2 | 41.7 |

바. 산업별 차이⁷⁾

-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정규직은 43.7시간, 비정규직은 41.4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음
 - 2020년에는 제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차이가 확연했으나, 2019년과 이전에는 제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차이가 크지 않았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조업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었다가 다시 회복했을 가능성
- 노동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정규직은 43.2시간, 비정규직은 40.8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노동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간의 차이가 매우 큼

7) 산업별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시간을 정규직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42.9시간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23.8시간으로 약 56% 수준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 산업이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간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

[표 3-20] 임금노동자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
| 농림어업 | 비정규직 | | 35.67 | 부동산업 | 비정규직 | 35.23 | 39.96 |
| | 정규직 | 41.00 | 44.94 | | 정규직 | 41.67 | 43.26 |
| | 합계 | 41.00 | 37.72 | | 합계 | 37.65 | 41.45 |
| 광업 | 비정규직 | | 42.93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비정규직 | 40.75 | 36.55 |
| | 정규직 | 40.00 | 42.69 | | 정규직 | 43.22 | 41.93 |
| | 합계 | 40.00 | 42.74 | | 합계 | 43.01 | 40.90 |
| 제조업 | 비정규직 | 41.39 | 38.65 | 사업시설관 리및지원 임대서비스 | 비정규직 | 39.38 | 38.03 |
| | 정규직 | 43.67 | 43.23 | | 정규직 | 44.71 | 43.10 |
| | 합계 | 43.40 | 42.31 | | 합계 | 42.27 | 40.07 |
| 전기가스 증기및공 기조절공 급업 | 비정규직 | | 36.56 | 공공행정, 국방,사회보 장 행정 | 비정규직 | 25.81 | 23.83 |
| | 정규직 | 40.00 | 41.27 | | 정규직 | 42.92 | 42.58 |
| | 합계 | 40.00 | 40.63 | | 합계 | 38.88 | 35.56 |
| 수도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비정규직 | 42.50 | 38.99 | 교육서비스업 | 비정규직 | 30.23 | 27.85 |
| | 정규직 | 47.41 | 43.60 | | 정규직 | 40.63 | 41.06 |
| | 합계 | 46.24 | 42.48 | | 합계 | 36.12 | 35.00 |
| 건설업 | 비정규직 | 37.82 | 38.05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비정규직 | 28.28 | 24.94 |
| | 정규직 | 44.36 | 43.49 | | 정규직 | 42.38 | 42.06 |
| | 합계 | 41.01 | 40.43 | | 합계 | 36.20 | 33.29 |
| 도소매업 | 비정규직 | 34.88 | 33.46 |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 비정규직 | 28.68 | 30.97 |
| | 정규직 | 44.04 | 43.35 | | 정규직 | 45.95 | 42.54 |
| | 합계 | 41.08 | 39.37 | | 합계 | 35.21 | 35.67 |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산업·고용형태 | | 수원 | 전국 |
|--------------|------|-------|-------|--------------------------|------|-------|-------|
| 운수 및 창고업 | 비정규직 | 46.52 | 39.52 | 협회,단체, 수리 및 가타서비스업 | 비정규직 | 31.90 | 32.78 |
| | 정규직 | 47.43 | 44.88 | | 정규직 | 44.75 | 44.05 |
| | 합계 | 47.02 | 42.93 | | 합계 | 37.86 | 38.82 |
| 숙박 및 음식점업 | 비정규직 | 30.65 | 30.02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비정규직 | 40.00 | 28.40 |
| | 정규직 | 48.41 | 46.63 | | 정규직 | | 74.58 |
| | 합계 | 36.12 | 35.03 | | 합계 | 40.00 | 28.70 |
| 정보통신업 | 비정규직 | 38.48 | 37.80 | 국제 및 외국기관 | 비정규직 | | 35.74 |
| | 정규직 | 42.29 | 41.97 | | 정규직 | | 40.76 |
| | 합계 | 41.74 | 41.10 | | 합계 | | 40.15 |
| 금융보험업 | 비정규직 | 39.90 | 38.27 | 전체 | 비정규직 | 34.84 | 32.98 |
| | 정규직 | 41.84 | 41.65 | | 정규직 | 43.57 | 42.94 |
| | 합계 | 40.96 | 40.23 | | 합계 | 40.55 | 38.83 |

사. 직종별 차이

-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무시간 차이가 확연. 비정규직은 1주 30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매우 적은 노동시간을 보임
- 반면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등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40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음

[표 3-21]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1

| 고용형태 | | 관리자 | 전문가및 관련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
| 수원 | 정규직 | 43.5 | 43.0 | 42.2 | 46.8 | 45.8 |
| | 비정규직 | 52.3 | 34.6 | 34.9 | 31.9 | 34.0 |
| | 평균 | 44.5 | 41.3 | 40.9 | 36.8 | 38.0 |
| 전국 | 정규직 | 42.6 | 42.2 | 41.9 | 44.8 | 43.7 |
| | 비정규직 | 40.1 | 33.3 | 34.9 | 29.6 | 33.4 |
| | 평균 | 42.2 | 39.8 | 40.5 | 35.4 | 37.7 |

[표 3-22] 임금노동자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2

| 고용형태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장치,기계조 작,조립종사 자 | 단순노무 종사자 |
|------|------|---------------|----------------|-----------------------|-------------|
| 수원 | 정규직 | | 43.9 | 45.9 | 45.6 |
| | 비정규직 | 54.0 | 38.9 | 36.6 | 34.7 |
| | 평균 | 54.0 | 41.6 | 43.8 | 38.6 |
| 전국 | 정규직 | 45.1 | 43.8 | 44.4 | 44.3 |
| | 비정규직 | 39.6 | 38.8 | 40.0 | 30.5 |
| | 평균 | 42.2 | 41.6 | 43.3 | 33.6 |

아. 사업체규모별 차이

- 정규직은 4명 이하 및 9명 이하 사업체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정규직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임
 - 다만, 3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음
 -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소규모 사업체에서 시간제 노동자들이 많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

[표 3-23] 임금노동자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 고용형태 | | 1~4명 | 5~9명 | 10~29 명 | 30~99 명 | 100~2 99명 | 300명 이상 |
|------|------|------|------|------------|------------|--------------|------------|
| 수원 | 정규직 | 46.0 | 45.7 | 42.8 | 42.9 | 42.7 | 43.4 |
| | 비정규직 | 33.7 | 34.3 | 34.7 | 37.5 | 37.1 | 33.3 |
| | 평균 | 37.3 | 40.7 | 39.6 | 41.5 | 41.3 | 42.2 |
| 전국 | 정규직 | 44.1 | 43.3 | 42.8 | 42.6 | 42.8 | 42.7 |
| | 비정규직 | 33.7 | 34.3 | 34.7 | 37.5 | 37.1 | 33.3 |
| | 평균 | 37.3 | 40.7 | 39.6 | 41.5 | 41.3 | 42.2 |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1)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가. 거주지 분포

- 수원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 수는 2020년 420,618명에서 2021년 411,698명으로 약 8천 명 감소하여 수원시의 일자리 수가 1년 동안 8천 개 감소했음을 의미
 -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수보다 거의 10만여 명이 적음
- 한편 수원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총 411,698명으로 수원시 거주 노동자 535,021명과 비교하면 약 11만 명이 적음
 - 즉, 수원시 내 일자리숫자가 지역 내 임금노동자보다 적는데, 이는 수원시가 경기도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즉, 수원에서 가족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타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
 - 지난 해 수원시 사업체 근무 노동자 420,618명보다는 약 9천 명 가량 일자리가 감소
-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수원시가 6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용인시, 서울시의 순서. 수원시 노동자들은 화성시에 약 6만 명이 일하러 많이 가지만 수원에 일하러 오는 화성시 노동자는 약 3만 명으로 차이가 두드러짐

[표 4-1]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거주지

| 지역명 | 인원수 | 비율(%) | 지역명 | 인원수 | 비율(%) |
|-------|--------|-------|--------|--------|-------|
| 서울특별시 | 24,593 | 6.0 | 경기 용인시 | 26,825 | 6.5 |
| 인천광역시 | 5,463 | 1.3 | 경기 파주시 | 145 | 0.0 |
| 광주광역시 | 136 | 0.0 | 경기 이천시 | 623 | 0.2 |

| 지역명 | 인원수 | 비율(%) | 지역명 | 인원수 | 비율(%) |
|---------------|----------------|-------------|---------------|---------------|------------|
| 대전광역시 | 303 | 0.1 | 경기 안성시 | 793 | 0.2 |
| 경기 수원시 | 269,549 | 65.5 | 경기 김포시 | 194 | 0.0 |
| 경기 성남시 | 7,361 | 1.8 | 경기 화성시 | 36,159 | 8.8 |
| 경기 안양시 | 7,750 | 1.9 | 경기 광주시 | 938 | 0.2 |
| 경기 부천시 | 1,373 | 0.3 | 경기 양주시 | 96 | 0.0 |
| 경기 광명시 | 920 | 0.2 | 경기 포천시 | 166 | 0.0 |
| 경기 평택시 | 2,626 | 0.6 | 경기 여주시 | 65 | 0.0 |
| 경기 안산시 | 7,620 | 1.9 | 경기 양평군 | 117 | 0.0 |
| 경기 고양시 | 1,707 | 0.4 | 강원 원주시 | 165 | 0.0 |
| 경기 과천시 | 667 | 0.2 | 충북 음성군 | 48 | 0.0 |
| 경기 구리시 | 477 | 0.1 | 충북 단양군 | 13 | 0.0 |
| 경기 오산시 | 4,948 | 1.2 | 충북 증평군 | 37 | 0.0 |
| 경기 시흥시 | 1,694 | 0.4 | 충남 천안시 | 469 | 0.1 |
| 경기 군포시 | 4,079 | 1.0 | 충남 아산시 | 120 | 0.0 |
| 경기 의왕시 | 2,740 | 0.7 | 충남 계룡시 | 31 | 0.0 |
| 경기 하남시 | 553 | 0.1 | 충남 당진시 | 135 | 0.0 |
| | | | 합계 | 411,698 | 100.0 |

나. 개인적 특성

- 2021년 수원시 일자리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로 전국의 55.2%와 비교하면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이는 수원시가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타지로 나가서 근무하고 여성들은 수원시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연령대별로는 2021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 중에는 40대가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4.0%를 차지

- 그리고 50대 임금노동자도 20.1%로 전국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했을 때 20대 노동자의 비중이 수원시 17.9%로 전국 17.3%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학력별로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92.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학력수준은 약간 높음
- 2021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근무기간을 확인한 결과 1~5년 이하가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0년 초과가 25.3%로 두 번째로 높았음
- 전국 평균 근무기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성별로 남성의 비중이 조금 낮고, 근무기간이 조금 짧은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2]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 | 구분 | 수원시 사업체 | | 전국 | |
|----|---------|---------|-------|------------|-------|
| | | 노동자수 | 비율(%) | 노동자수 | 비율(%) |
| 성 | 남성 | 223,471 | 54.3 | 11,391,448 | 55.2 |
| | 여성 | 188,227 | 45.7 | 9,255,121 | 44.8 |
| 연령 | 29세 이하 | 73,795 | 17.9 | 3,580,567 | 17.3 |
| | 30대 | 98,608 | 24.0 | 4,496,870 | 21.8 |
| | 40대 | 102,732 | 25.0 | 4,917,502 | 23.8 |
| | 50대 | 82,747 | 20.1 | 4,536,984 | 22.0 |
| | 60세 이상 | 53,816 | 13.1 | 3,114,646 | 15.1 |
| 학력 | 중졸이하 | 29,737 | 7.2 | 2,275,093 | 11.0 |
| | 고졸 | 136,296 | 33.1 | 7,459,051 | 36.1 |
| | 전문대졸 이상 | 245,664 | 59.7 | 10,912,425 | 52.9 |

| | 구분 | 수원시 사업체 | | 전국 | |
|---------------|-----------|---------|-------|------------|-------|
| | | 노동자수 | 비율(%) | 노동자수 | 비율(%) |
| 근속 기간 | 6개월 이하 | 85,722 | 20.8 | 4,985,837 | 24.1 |
| | 6개월~1년 이하 | 34,919 | 8.5 | 1,564,967 | 7.6 |
| | 1~5년 이하 | 131,392 | 31.9 | 6,544,975 | 31.7 |
| | 5~10년 이하 | 55,671 | 13.5 | 2,987,684 | 14.5 |
| | 10년 초과 | 103,994 | 25.3 | 4,563,107 | 22.1 |
| 종사 상 지위 | 상용직 | 299139 | 72.7 | 14,712,062 | 71.3 |
| | 임시직 | 86598 | 21.0 | 4,667,042 | 22.6 |
| | 일용직 | 25961 | 6.3 | 1,267,466 | 6.1 |
| 합계 | | 411,698 | 100.0 | 20,646,569 | 100.0 |

다. 고용형태별 분포

- 수원시 소재 사업체들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은 2020년 39.8%에서 2021년 60.0%로 크게 증가했지만, 반대로 비정규직은 2020년 60.2%에서 2021년 40.0%로 크게 감소
- 다만, 2021년 수원시 소재 사업체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 2020년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후 예년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추정

[표 4-3]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율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정규직 | 167,429 | 39.8 | 251,386 | 61.1 |
| 비정규직 | 253,189 | 60.2 | 160,311 | 38.9 |
| 합계 | 420,618 | 100.0 | 411,698 | 100.0 |

라. 산업별 및 직종별 분포

- 수원시 소재 사업체들의 산업별 임금노동자수를 확인한 결과 수원시의 일자리 중에서 제조업은 11.9%로 가장 높았으나 2019년 15.0%, 2020년 12.0%와 비교하면 제조업 비중이 크게 낮아졌음
 - 즉, 수원시 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수원시 노동자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도시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수원시내에 제조업 일자리는 1,689개 감소
-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 비중은 제조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건설업의 순서
 -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산업별 규모 및 비율

| 구분 | 수원시 사업체 | | 전국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농림어업 | 534 | 0.1 | 101,630 | 0.5 |
| 광업 | | | 12,321 | 0.1 |
| 제조업 | 48,810 | 11.9 | 3,916,615 | 19.0 |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539 | 0.1 | 62,434 | 0.3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1,382 | 0.3 | 154,974 | 0.8 |
| 건설업 | 33,333 | 8.1 | 1,667,386 | 8.1 |
| 도소매업 | 40,556 | 9.9 | 2,122,931 | 10.3 |
| 운수및창고업 | 17,639 | 4.3 | 912,595 | 4.4 |
| 숙박및음식점업 | 30,411 | 7.4 | 1,274,751 | 6.2 |

| 구분 | 수원시 사업체 | | 전국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정보통신업 | 14,935 | 3.6 | 806,592 | 3.9 |
| 금융보험업 | 14,216 | 3.5 | 787,012 | 3.8 |
| 부동산업 | 7,289 | 1.8 | 364,350 | 1.8 |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40,915 | 9.9 | 1,046,355 | 5.1 |
|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 | 23,389 | 5.7 | 1,254,535 | 6.1 |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 26,685 | 6.5 | 1,157,132 | 5.6 |
| 교육서비스업 | 37,654 | 9.1 | 1,537,828 | 7.4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49,102 | 11.9 | 2,395,603 | 11.6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6,710 | 1.6 | 218,086 | 1.5 |
|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17,025 | 4.1 | 652,600 | 3.2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 576 | 0.1 | 86,118 | 0.4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14,721 | 0.1 |
| 합계 | 411,698 | 100.0 | 20,646,569 | 100.0 |

-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직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32.5%로 압도적으로 높음
 - 전문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경향이며,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가 21.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능원과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비중은 10%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다만 단순노무자의 비중은 2021년 15.4%로 세 번째로 많음
- 전체적으로 수원시 거주 노동자와 직업분포는 비슷하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적어서 생산기능직의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이 특징

[표 4-5]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직종별 규모 및 비율

| 구분 | 수원시 사업체 | | 전국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관리자 | 5,210 | 1.3 | 365,086 | 1.8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133,933 | 32.5 | 4,651,662 | 22.5 |
| 사무종사자 | 88,297 | 21.4 | 4,443,257 | 21.5 |
| 서비스종사자 | 38,489 | 9.3 | 2,031,105 | 9.8 |
| 판매종사자 | 28,012 | 6.8 | 1,594,559 | 7.7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271 | 0.1 | 52,022 | 0.3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28,252 | 6.9 | 1,766,418 | 8.6 |
|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 26,001 | 6.3 | 2,118,169 | 10.3 |
| 단순노무 종사자 | 63,231 | 15.4 | 3,624,292 | 17.6 |
| 합계 | 411,698 | 100.0 | 20,646,569 | 100.0 |

2)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수원시 소재 사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20년 301.3만원에서 2021년 309.5만원으로 약 8만원 상승. 전국 수준의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지만 수원시 거주 노동자들의 2021년 평균임금인 323.6만원보다는 약 14만원 낮은 편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집은 수원이지만 인근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
- 그런데 수원시 사업체 정규직 평균임금은 385.3만원으로 수원시 거주 정규직 임금 38.5만원보다 약간 낮은 편
 - 반면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수원시 거주 노동자들이 261.7만원인 반면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은 233.7만원으로 많이 낮음

- 이는 수원시 내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
- 수원시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의 평균보다는 낮았는데, 주당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0.6시간으로 수원시 거주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 39.8시간보다 조금 길었음
- 고용형태별로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 사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33.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이로 인해 월평균 임금도 낮아진 것으로 추정

[표 4-6]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구분 | 수원 거주 노동자 | |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 | |
|------|-----------|------|-------------|------|
| | 월임금 | 노동시간 | 월임금 | 노동시간 |
| 정규직 | 384.9 | 43.6 | 384.3 | 43.6 |
| 비정규직 | 207.5 | 34.8 | 192.2 | 33.9 |
| 평균 | 323.6 | 40.6 | 309.5 | 39.8 |

- 수원시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은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은 약간 짧음.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모두 양호한 편
- 이러한 점에서 수원시 소재 사업체 일자리들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수준보다는 낮으며, 수원시에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원시내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즉, 수원시내에는 수원시민들의 임금수준을 만족시켜줄 일자리가 다소 부족하고, 이러한 이유로 특히 비정규직들의 경우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편이라고 추정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 주요 업종 및 서비스부문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준산업분류(대분류)의 현황을 검토
- 이를 위해서 5개 업종 재분류 작업은 21개 대분류 업종을 <1. 농림어업 2. 광업제조업, 3. 건설업, 4. 공공서비스 5. 기타민간서비스> 5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1~3차 산업을 기본으로, 서비스부문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구분하였고 건설업의 경우 별도로 분류
 - 1~3번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은 대분류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산업대분류 중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에는 <4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5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6 교육서비스업,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
 - 기타민간서비스 부문에는 <7 도소매업 8 운수및창고업 9 숙박및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19 협회,단체,수리및기타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21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다만 농림어업의 경우 2021년에는 응답자가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실제로는 4분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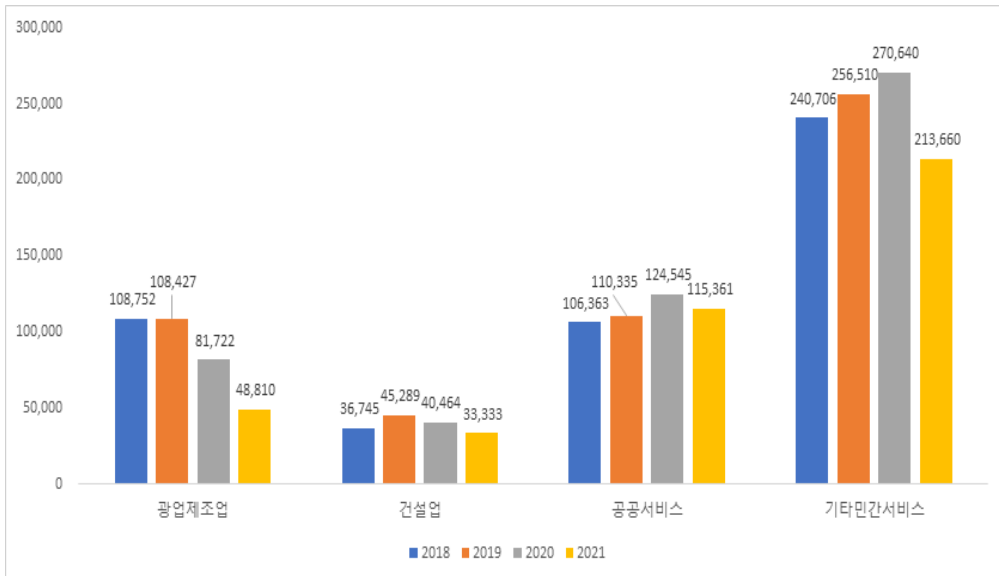
1) 일반적 현황

가. 산업5분류별 분포

- 먼저 산업5분류로 수원시 임금노동자수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은 2019년108,427명을 정점으로 2020년에는 2만명 이상 감소했었는데, 2021년에는 48,810명으로 약 3만명 이상 감소
-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노동자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1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

설경기에 따라서 임금노동자수가 증감을 하고 있었으나 2021년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5-1] 2018년~2021년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노동자수



나. 고용형태별 분포

- 다음으로 산업5분류로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비율은 2020년 제조업>기타민간서비스>건설업>공공서비스순서에서 2021년 제조업>공공서비스>기타민간서비스>건설업 부문으로 순서가 바뀜
 - 2020년 공공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특별히 높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조사기간 주중에 공휴일(총선)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으로 공공서비스업에서 시간제 노동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산되어 결괏값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 공공서비스업에서는 공휴일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많이 보장되기 때문
 - 2021년에는 2019년 이전 수준처럼 정규직 비율은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짐

[표 5-1]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 구분 | 2020년 | | 2021 |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제조업 | 53,305 | 28,417 | 42,857 | 5,953 |
| | 65.2% | 34.8% | 87.8% | 12.2% |
| 건설업 | 16,503 | 23,961 | 14,872 | 18,461 |
| | 40.8% | 59.2% | 44.6% | 55.4% |
| 공공서비스 | 47,451 | 77,093 | 71,701 | 43,660 |
| | 38.1% | 61.9% | 62.2% | 37.8% |
| 기타민간서비스 | 122,311 | 148,329 | 121,422 | 92,238 |
| | 45.2% | 54.8% | 56.8% | 43.2% |
| 전체 | 239,570 | 277,800 | 251,386 | 160,312 |
| | 46.3% | 53.7% | 61.1% | 38.9% |

다. 성별 분포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성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은 남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는 여성의 비율이 69.3%로 더 높았으며, 기타민간서비스 부문은 남성의 비율은 57.8%로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건설업은 예상대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 및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여성노동 문제 및 단시간 노동, 일-가정 병행 등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표 5-2]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성별 현황

| | 2020년 | | 2021년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제조업 | 59,855 | 21,867 | 67,713 | 22,020 |
| | 73.2% | 26.8% | 75.5% | 24.5% |
| 건설업 | 36,626 | 3,838 | 44,376 | 5,847 |
| | 90.5% | 9.5% | 88.4% | 11.6% |
| 공공서비스 | 42,021 | 82,524 | 36,594 | 82,683 |
| | 33.7% | 66.3% | 30.7% | 69.3% |
| 기타민간서비스 | 161,098 | 109,542 | 159,103 | 116,224 |
| | 59.5% | 40.5% | 57.8% | 42.2% |
| 전체 | 299,600 | 217,771 | 307,786 | 226,774 |
| | 57.9% | 42.1% | 57.6% | 42.4% |

라. 연령대별 분포

- 수원시 산업5분류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업종별로 확인한 결과, 2021년 제조업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32.8%로 가장 높고 40대의 비중도 24.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
- 건설업은 50대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60대 이상의 비율도 민간서비스 부문과 함께 높게 나타나 건설업은 고령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 반면 공공서비스 부문은 2021년 40대의 비중이 27.5%로 가장 높으나 30대도 26.1%로 높은 편
- 기타민간서비스 부문은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20%의 비중으로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60세 이상도 12.4%로 건설업과 함께 비교적 높은 편
- 젊은 노동자들이 다수이지만, 60대 이상의 고령노동자들도 민간서비스부문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고령 노동자들은 주로 청소 및 경비 등의 사업시설관리서비스부문 노동자들로 추정)

[표 5-3] 2020년~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연령대별 비율

| 구분 | | 29세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제조업 | 2020 | 21.0% | 31.0% | 23.6% | 20.5% | 3.8% |
| | 2021 | 18.5% | 32.8% | 24.1% | 18.0% | 6.5% |
| 건설업 | 2020 | 10.4% | 15.5% | 28.4% | 33.5% | 12.2% |
| | 2021 | 14.3% | 12.6% | 26.9% | 32.3% | 13.9% |
| 공공 서비스 | 2020 | 18.2% | 25.9% | 26.9% | 20.5% | 8.4% |
| | 2021 | 17.1% | 26.1% | 27.5% | 16.9% | 12.4% |
| 기타민간 서비스 | 2020 | 20.9% | 23.6% | 23.0% | 19.5% | 13.0% |
| | 2021 | 19.2% | 23.3% | 23.2% | 21.9% | 12.4% |

마. 학력별 분포

-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서비스부문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임금노동자 중에서 3/4을 차지
- 건설업은 2021년 고졸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이하는 11.4%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건설업과 함께 6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타민간서비스부문의 경우 학력별 현황에서 중졸이하가 7.7%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4]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학력별 비율

| 구분 |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
|-----------|------|-------|-------|-------|
| 제조업 | 2020 | 3.3% | 39.2% | 57.5% |
| | 2021 | 2.8% | 35.8% | 61.4% |
| 건설업 | 2020 | 11.7% | 58.9% | 29.4% |
| | 2021 | 11.4% | 50.4% | 38.2% |
| 공공 서비스 | 2020 | 4.1% | 19.2% | 76.7% |
| | 2021 | 7.4% | 19.6% | 73.0% |
| 기타민간서비스 | 2020 | 9.6% | 34.0% | 56.5% |
| | 2021 | 7.7% | 35.6% | 56.6% |

바. 근무기간별 분포

- 근무기간별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5분류를 확인한 결과, 2021년 기준 현재의 업체에서 10년 초과 근무한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제조업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서비스가 29.7%로 두 번째
 - 2020년에는 공공서비스업이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낮아지면서 제조업의 장기근무 비율이 더 높음
 - 반면 건설업에서는 10년 초과 근무자가 17.6%에 불과하였으며, 기타민간서비스도 장기근무자 비율이 23.0%로 비교적 낮은 편
- 6개월 이하 단기근무자의 비율은 건설업이 37.7%로 매우 높았으며, 다만 2020년 40.9%보다는 다소 낮아짐
 - 기타민간서비스부문은 6개월 이하 근무자가 2020년 16.0%에서 2021년에는 19.1%로 다소 높아짐
- 대체로 건설업과 기타민간서비스부문이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낮고, 신규 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입직과 전직의 일자리의 이동이 잦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표 5-5]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근무기간별 비율

| 구분 | | 6개월 이하 | 6개월~1년 이하 | 1~5년 이하 | 5~10년 이하 | 10년 초과 |
|----------|------|--------|-----------|---------|----------|--------|
| 제조업 | 2020 | 10.5% | 5.1% | 32.9% | 25.9% | 25.7% |
| | 2021 | 17.4% | 6.9% | 28.6% | 16.2% | 31.0% |
| 건설업 | 2020 | 40.9% | 17.4% | 18.8% | 10.2% | 12.7% |
| | 2021 | 37.7% | 9.6% | 32.5% | 2.7% | 17.6% |
| 공공 서비스 | 2020 | 15.5% | 7.8% | 33.8% | 15.0% | 27.9% |
| | 2021 | 16.6% | 9.5% | 32.9% | 11.2% | 29.7% |
| 기타민간 서비스 | 2020 | 16.0% | 8.1% | 37.9% | 17.0% | 21.0% |
| | 2021 | 19.1% | 7.8% | 34.2% | 15.9% | 23.0% |

사. 직종별 분포

- 산업5분류로 2021년 직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자는 전문가의 비율이 55.0%로 1/2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타민간서비스도 27.3%로 전문가 비율이 다소 높은 편
 - 제조업은 전문가의 비율이 30.1%로 생산기능직군보다 비중은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건설업은 기능원이 37.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기타민간서비스부문은 다른 업종에서는 거의 없는 판매종사자가 10.5%를 차지
- 제조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직업분포와 다소 차이
 - 이는 수원시의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경우 인근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사무관리직들이 수원에서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건설업과 기타민간서비스 부문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각각 23.6%, 1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노동자들의 분포 때문일 것으로 추정

[표 5-6]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 직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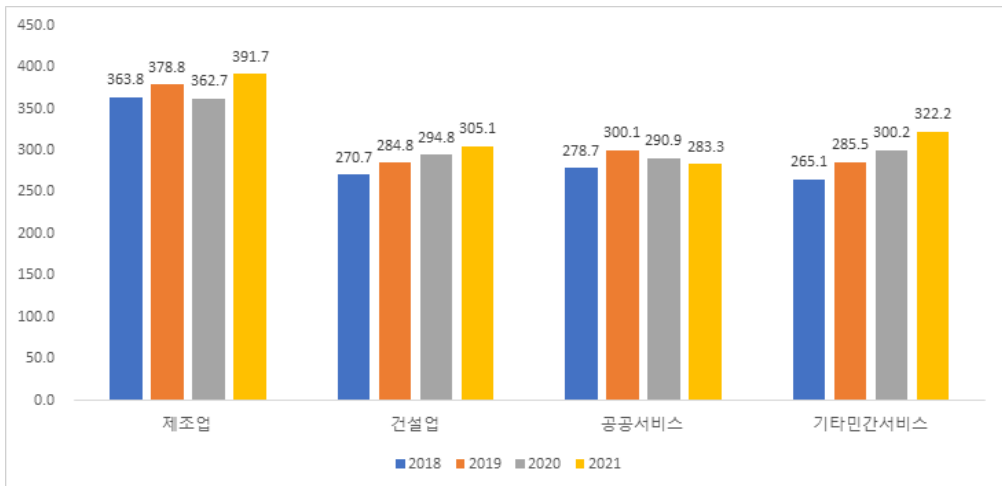
| 구분 | 제조업 | 건설업 | 공공서비스 | 기타 민간서비스 |
|----------------|-----------------|-----------------|-----------------|-----------------|
| 관리자 | 430 0.5% | 3,003 6.0% | 1,316 1.1% | 2,697 1.0%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7,054 30.1% | 3,864 7.7% | 65,654 55.0% | 75,273 27.3% |
| 사무종사자 | 21,460 23.9% | 10,440 20.8% | 24,912 20.9% | 63,866 23.2% |
| 서비스종사자 | 0 0.0% | 0 0.0% | 15,059 12.6% | 23,749 8.6% |
| 판매종사자 | 842 0.9% | 0 0.0% | 0 0.0% | 28,850 10.5%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0 0.0% | 466 0.9% | 0 0.0% | 0 0.0% |

| 구분 | 제조업 | 건설업 | 공공서비스 | 기타 민간서비스 |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9,637 10.7% | 18,856 37.5% | 1,669 1.4% | 10,819 3.9% |
|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 23,408 26.1% | 1,750 3.5% | 2,273 1.9% | 16,661 6.1% |
| 단순노무 종사자 | 6,902 7.7% | 11,843 23.6% | 8,394 7.0% | 53,411 19.4% |

2) 월 평균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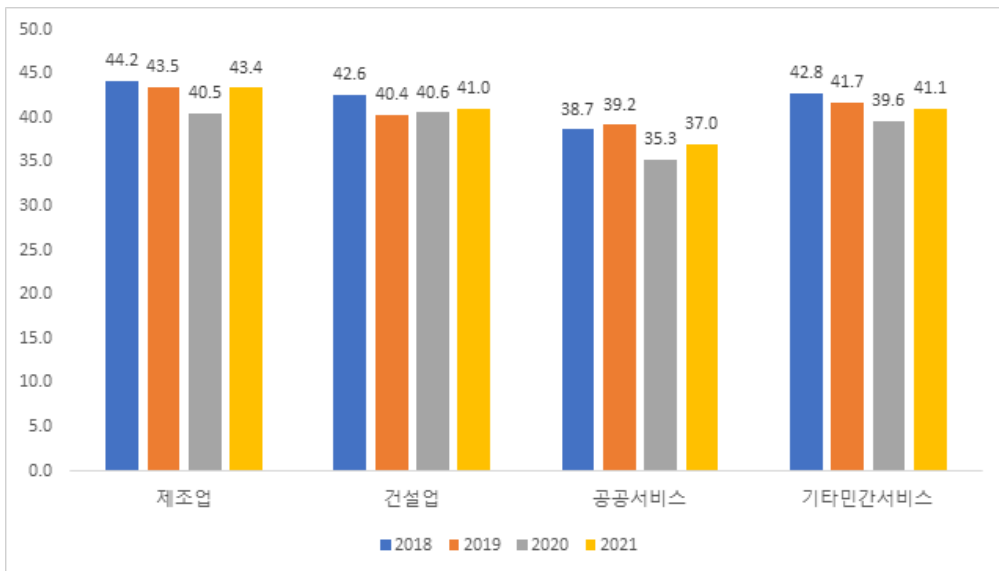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제조업이 391.7만원으로 다른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음
 - 건설업은 2018년 270.7만원에서 2021년 305.1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공공서비스의 2021년 평균임금은 283.3만원으로 2020년 대비 약 7만원이 하락하여 4개 부문 중 평균임금이 가장 낮음
 - 기타민간서비스부문의 월 평균임금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 하락했다가 2021년에는 322.2만원으로 상승하면서 공공부문보다 임금수준이 높아짐

[그림 5-2] 2018년~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월 평균임금



- 산업5분류별로 주당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2017년 이후 전반적인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했으나 2021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세를 보임
 - 2020년에는 건설업이 40.6시간으로 가장 길지만 제조업 40.5시간과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2021년에는 제조업이 43.4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민간서비스 41.1시간, 건설업 41.0시간, 공공서비스 37.0시간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 2018년~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주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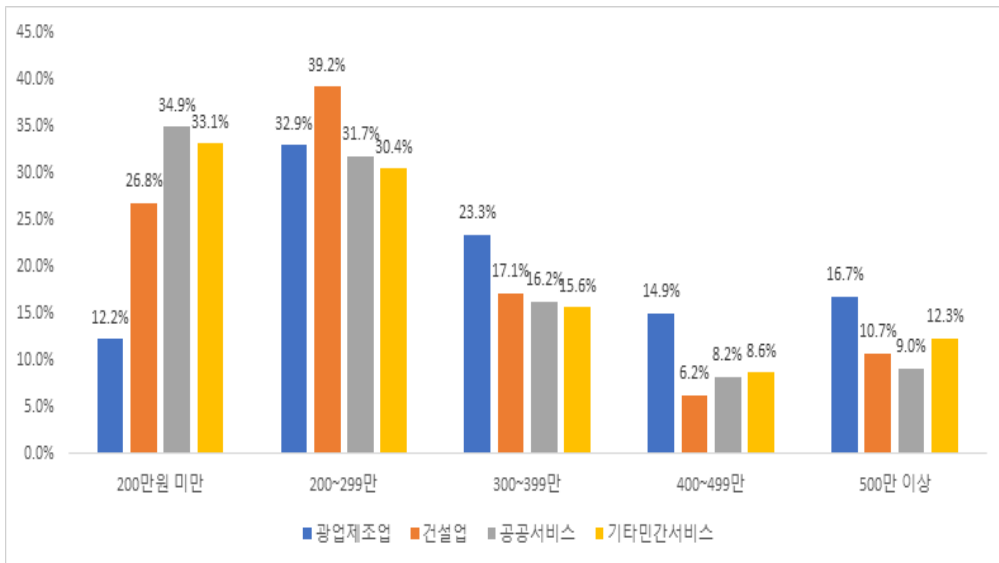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구간별로 노동자들의 분포를 확인하여, 고임금 군과 저임금 군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함
-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하여 월 2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의 비중을 확인한 결과 공공서비스에서 34.9%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은 12.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음
- 반면 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제조업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서비스가 9.0%로 가장 낮았음

● ● 2021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제조업은 300만원 이상 구간에 23.3%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건설업과 공공서비스, 기타민간서비스는 모두 300만원 미만 구간의 임금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제조업과 다른 업종 간의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4]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임금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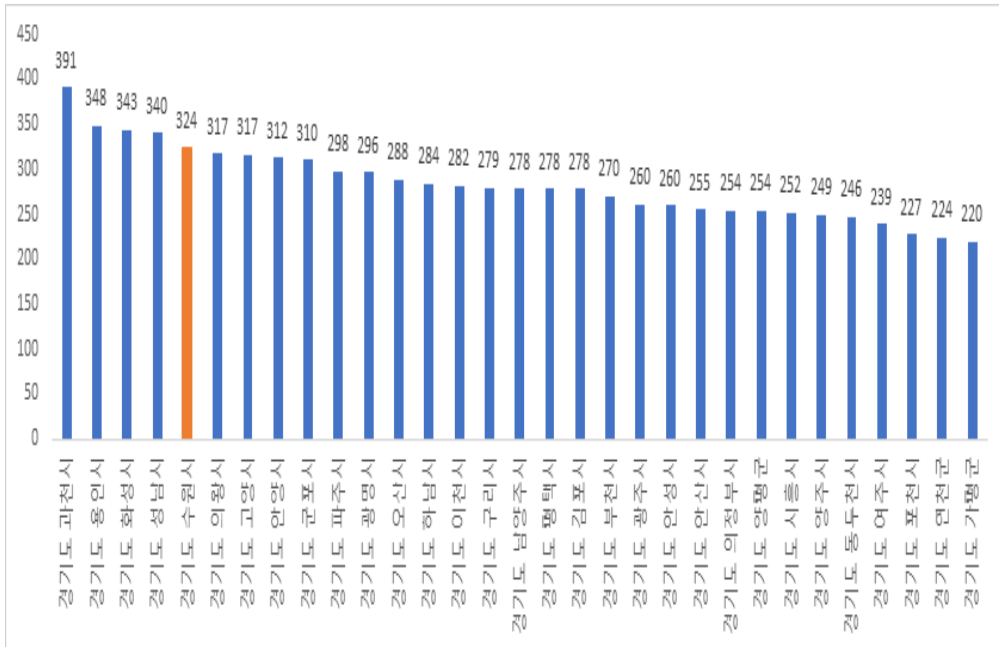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업종/직종별 취약부문**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업종/직종별 취약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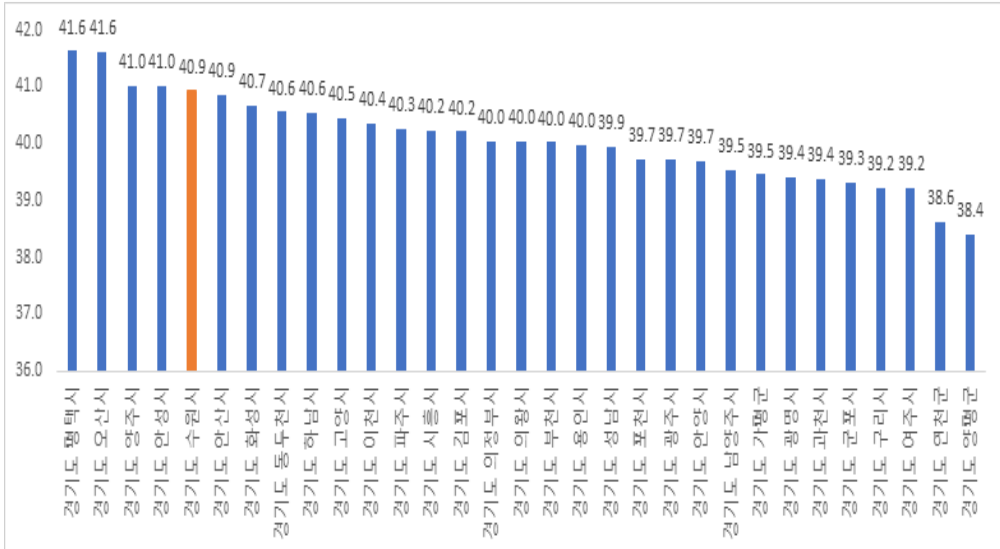
- 수원시 비정규직 비율은 그 동안 전국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으나 2021년에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업종별 분포에서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업종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정규직이 다수인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양호한 편
 - 하지만 최근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
- 2021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0.6시간, 월 평균 임금은 323.6만원으로 전국 평균 주당 노동시간 38.8시간, 월 평균 임금 274.9만원과 비교했을 때 수원시 노동자들이 주당 1.4시간 정도 더 일하지만 전국의 임금노동자들보다 약 49만 원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수원시가 속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결과 2021년 수원시는 과천시(391만원), 용인시(348만원), 화성시(343만원), 성남시(340만원) 다음으로 5번째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높은 지자체. 지난 2020년은 8번째였으나 2021년 3계단 상승
 -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라는 사실을 확인(이는 기본적으로 휴전선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군지역의 평균임금이 낮기 때문이기도 함)

[그림 6-1] 경기도 31개 시군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 2021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평택시, 오산시, 양주시, 안성시의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수원시 임금노동자들보다 길었으며,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은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편이었음
 - 2020년 4번째로 긴 자치단체에서 한 계단 상승했으며, 상대적 노동시간은 긴 편
- 2021년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의 임금수준은 순위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순위가 비교적 덜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이 증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6-2] 경기도 31개 시군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 경기도 31개 시군별 월급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는 29.4%로 경기도 내에서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과천시와 화성시 다음으로 3번째로 낮았음

[그림 6-3] 경기도 31개 시군 임금노동자 월급 200만 원 이하 비율

